

남북접촉을 위한 이론의 정립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3년도 하반기 학술  
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73년 12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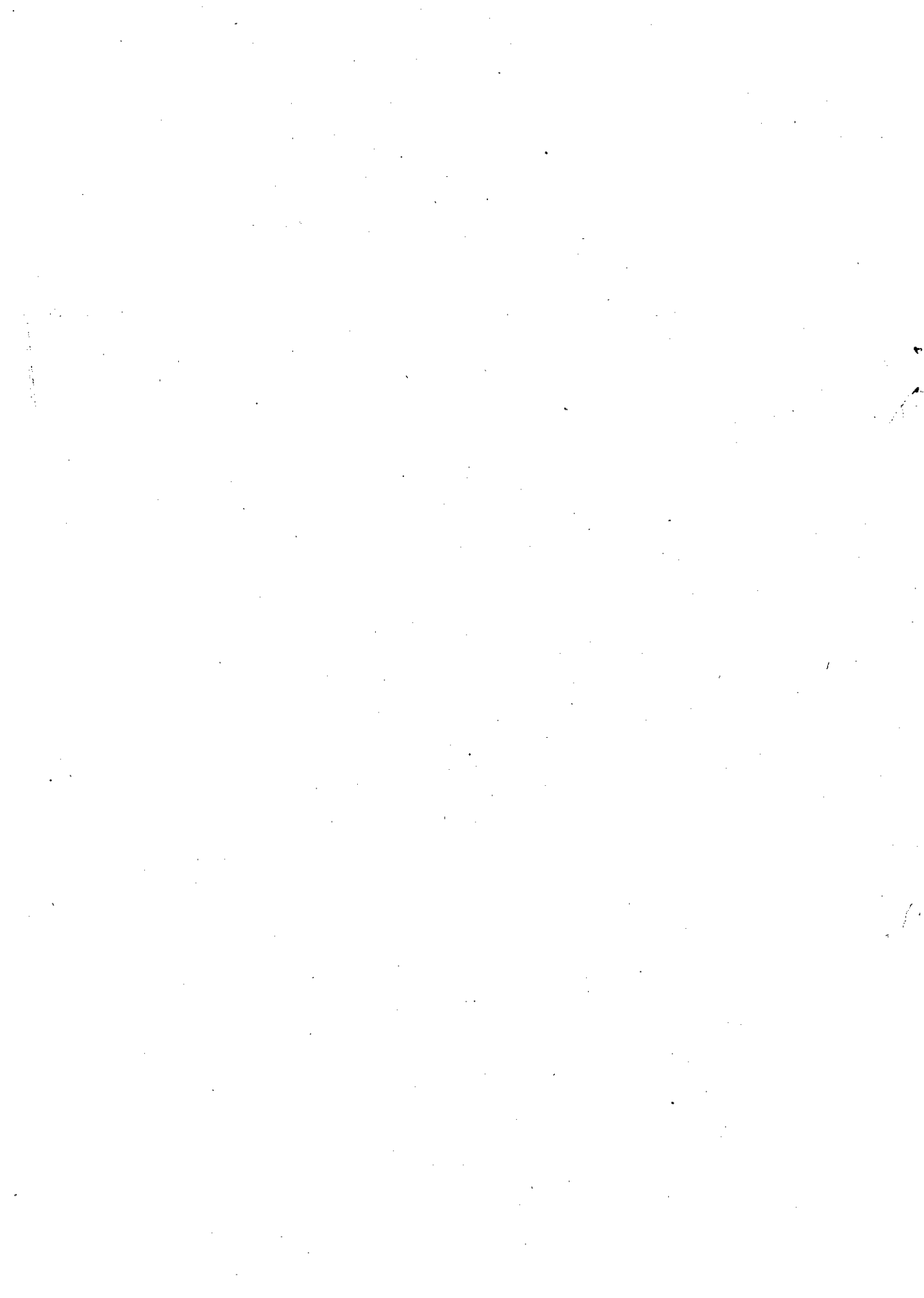
연구책임자 홍익성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3년도 하반기 학술  
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73년 12 월 일

연구책임자 홍익성



## 目 次

第一章 序 論	5
第一節 研究目的	5
第二節 研究의 前提와 範圍	10
第三節 研究方法	15
第四節 概念의 定義	16
第二章 理論的 背景	23
第一節 統合과 接觸	23
第二節 接觸의 一般理論	28
第三節 南北接觸을 爲한 基準選定	30
1. 南北韓關係의 二重構造的 性格	30
2. 南北接觸基準의 選定	32
第三章 南北接觸類型의 定立	35
第一節 接觸의 基準	35
1. 接觸과 同質性	35
2. 接觸과 政治文化	38
3. 接觸과 技術增進	45
第二節 相互關係 ; 同質性, 政治文化, 技術增進	52
1. 接觸의 試圖과 維持·擴大	52
2. 波及作用	54

3. 接觸의 制約變數와 戰略變數	61
第三節 接觸의 類型	68
1. 尺度의 決定	68
2. 類型的 選定	72
第四章 類型的 適用 및 假說의 導出	75
第一節 接觸分野와 接觸方法	75
第二節 接觸의 Feasibility 檢討	
- 接觸의 諸形態를 中心으로 -	86
第三節 假說의 導出	99
第四節 理論的 限界	112
第五章 結 論	115



# 第 一 章 序 論

## 第 1 節 研 究 的 目 的

本 研究는 南·北韓間의 接觸을 爲한 理論的 基礎를 定立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따라서 本 研究는 南北韓接觸에 關한 研究이며 同時에 韓民族의 統一을 平和的으로 實現하기 爲한 새로운 接近方法에 關한 研究이기도 하다.

韓半島가 分斷된 以後 南北韓을 「單一化」 하기 爲한 寸한 努力이 이루어져 은 反面에 이것을 指稱하는 用語에 있어서도 많은 混雜을 가져왔다.

우선 南北間의 單一化를 爲한 努力으로서 「勝共」, 「赤化」를 標榜하면서 我方体制의 肯定과 他方体制를 否定하는 武力的 方法을 비롯해서 名目上 平和的인 「統一獨立된 民主韓國의 建設」이라는 統一原則下에 政治的인 合法性(legality)을 固守 내지 獲得하기 爲한 体制相互間의 政治的 名分鬭爭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對內·外的인 努力이 경주되어 왔다.<sup>1)</sup>

---

註 1) 南北間을 基本的으로 南北韓이 處해 있는 武力的 對峙狀態에 強調해서 南北韓 關係를 說明하는 見解로서는 Morton Abramovitz, "Moving the Glacier; The Two Koreas and Powers," Adelphi Papers, No. 80,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71.9 參照 그리고 「平和的 方法에 依한 統一 獨立된 民主韓國의 建設」의 統一原則의 主張에 關해서는 The 1954 Geneva Conference, Indo-China and Korea, New York, Greenwood Press, 1968, PP.53-54, PP.4~5, 58~59. 參照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南北을 「單一化」하기에는 非妥協的 (uncompromising)이며 融通성이 없고 (inflexible), 實現不可能 (unrealistic) 한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다.<sup>2)</sup>

이와 反面에 南北間의 「單一化」를 指稱하는 用語面에서도 統一 (unification), 統合 (integration), 再結合 (reassociation) 등이 相互 混雜되어 使用되어 왔다.<sup>3)</sup>

이러한 既存 統一노력의 惡循環과 用語의 混雜은 窮極의으로 다음 몇가지에 그 原因이 있었음을 指摘할 수 있다.

첫째로 南北間에 놓여있는 基本的인 兩側面 즉 「單一民族」이라는 要素와 「相異한 理念體制」-自由, 共產-라는 要素中에서 理念의 問題가 民族의 問題보다 優勢하게 南北을 支配하고 있었다는 點이다.<sup>4)</sup>

---

其他 全般的인 南北韓間의 統一政策에 關해서는 鄭仁攄, 韓國政府의 統一政策評價, 서울, 亞細亞問題研究所, 1971.; Kch B.C.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New York, Preager, 1969.

註 2 ) Yang Sung Chul, "Korea Unification; A Functionalist Model", Prepared for the delivery at Southeastern Conference on Asian Affairs, Mary Washing College of the University of Virginia, January 28-29, 1972  
參照

註 3 ) 本稿에서 使用하는 統一, 統合의 概念에 關해서는 第一章 第四節「概念의 定義」參照

註 4 ) 本稿 第二章 「南北關係의 二重의 構造」參照

이것은 東·西 冷戰体制의 國際政治的 秩序가 理念의 對立을 本質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國際的 背景으로 말미암아 南北關係도 理念的 對立의 性格을 基本으로 하게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南北間의 問題解決을 兩体制가 主導的으로 解決하려는 努力보다 強大國에 依存하려는 생각이 強했다는 點이다. 5)

세째로 南北間의 單一化를 위한 手段으로서 政治的·武力的方法에만 執着하므로써 非政治的인 統合努力이나 其他의 方法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點이다.

이것은 政治的·武力的方法에 依한 單一化가 곧 諸分野에서의 南北間의 統合을 可能하게 할 것이라는 前提에 서서, 分斷以後 새로이 形成된 相互 異質的인 諸 要素를 無視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註 5) Yang Sung Chul, 前掲論文; 여기서 는 이것을 "the Big-Power Syndrome"으로 說明하고 있다. 그는 既存 韓國의 統一政策이 다음과 같은 5가지의 誤謬(five common fallacy)에 빠져 있었다고 보고 있다.

- ① the big-Power syndrome
- ② the reality-myth complex
- ③ the systemic illusion
- ④ the failure of both political leaders Place Korean Question beyond and above their own internal political framework
- ⑤ the failure of seperating the political aspects of the Korean Question from its non-political or "functionalist" realms.

네째는 南北의 政治指導者들이 共히 統一實現을 위해 努力할 수 있는 共同의 目標(common goal)가 없었다는 点이다.

위에서 指摘된 네가지 問題點을 最近의 韓半島 內.外 情勢와 關聯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再整理할 수 있다.

첫째 ; 最近의 國際情勢가 國家實利主義를 標榜하는 脫 ideology 의 方向으로 進展되므로서 南北關係를 「民族」과 「理念」의 兩側面으로 分離하여 생각할 수 있는 外的 條件의 助成<sup>6)</sup>

둘째 ; 7. 4 南北共同聲明 및 最近의 南北調節委의 活動等으로 나타난 南北 政治指導者들의 統一을 爲한 共同努力.

세째 ; 南北間의 深化된 異質性을 解消하고 나아가서 窮極的인 單一化의 基盤을 助成하기 위한 方法으로서 非政治的 領域에서의 統合努力의 可能性 增大<sup>7)</sup>

네째 ; 統一을 統合의 實踐的. 政策的 概念으로 把握하고 統合은 南北間의 領土的. 政治的. 非政治的 諸分野의 單一化로 把握하므로서 統一의 새로운 概念의 定立의 必要性.

다섯째 ; 南北間의 統合을 爲해서는 非政治的 領域에서 政治的 領域으로의 段階的인 發展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非政治的 領域에서의 統合은 南北接觸을 媒介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假定<sup>8)</sup>

---

註 6) 本稿 第一章 第二節 參照

註 7) 非政治的 統合努力으로는 機能主義的 方法(functional approach)을 導入한 研究로서 ; 우재승, 機能主義理論과 南北再統合 (統一政策資料 X). 國土統一院 1972.8 ; 우재승, 統合理論의 比較研究와 韓國統一의 接近方法, 國土統一院 1972.6.

註 8) Yang Sung chil, 前掲論文 및 우재승 上繼書

本研究는 위에서 再整理한 5個의 事項에 根拠하여, 南北間의 統合을 實現하기 위한 初步的 段階로서, 非政治的 領域의 接觸을 提起하고 다음 두가지의 目的을 위해 試圖하였다.

첫째로는 南北間의 統合을 爲한 한 方便으로서 南北間의 接觸理論을 定立하는 일과, 둘째는 이러한 作業을 通하여 南北間의 接觸可能한 分野와 方法의 feasibility를 檢討하고 나아가서 接觸의 優先順位를 選定하는 등 몇가지의 假說을 導出하는 일이다.

그러기 爲해 南北의 特殊한 條件에 適合한 判斷基準을 設定하여 이들 間의 相互作用關係에 關한 理論的 法則을 樹立하고 接觸의 類型을 選定하여 이 類型에 立脚한 分析을 試圖하였다.

南北間의 接觸에 關한 本 研究는 모두 5個의 章으로 構成되어 있다. 第一章에서는 研究의 目的, 前提 및 範圍, 研究의 方法을 다루고 概念을 定義하였다,

第二章에서는 接觸에 關한 一般的인 理論的背景을 다루고 南北關係의 二重的 構造 - 理念, 民族- 를 說明함으로써 研究의 理論的 「틀」로 삼았다.

第三章에서는 二章에서 提示한 「틀」을 中心으로 南北接觸을 沮害 또는 促進하는 세가지 判斷基準을 檢討하고 이 判斷基準에 立脚한 南北接觸의 理論的 法則을 樹立하고 接觸의 類型을 定立하고자 試圖하였다.

第四章에서는 三章에서 얻어진 類型에 따라 接觸分野와 接觸方法을 通하여 南北間의 接觸可能形態와 接觸의 優先順位 등 南北接觸을 爲한 假說을 導出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結論을 整理하였다.

## 第二節 研究의 前提와 範圍

### 1. 韓半島의 外的條件과 內的條件

南北間의 非政治的 接觸을 南北統合의 한 方便으로 把握하는데 있어서 根本적으로 두가지의 制約條件을 考慮할 必要가 있다.

첫째는 韓半島의 統一의 外的條件으로서 韓半島 周邊의 強大國間의 力學關係에서 派生하는 外的인 影響이며, 둘째는 統一의 內的條件으로 南北의 現實 權力指導層이 統一을 指向하는 強力한 努力이다. 이 두가지 要素는 本 研究가 目的으로 하는 南北間의 接觸을 爲한 前提가 된다.

무릇 現代의 國際政治 秩序는 強大國의 政治라 불리어 진다.

이것은 弱少國의 國內政治가 國際政治的 制約속에서 이루어짐을 뜻한다.<sup>9)</sup>

따라서 南北間의 問題를 分斷의 原因을 論하기 前에, 統一, 單一化를 追求하는 分斷民族의 內部問題( intranational problem)로 把握할 때 上記한 外的條件은 如何한 韓半島問題 解決에 있어서도 重大한 影響要因이 될 뿐 아니라 內的條件을 規制하는 役割까지 担当한다.

그런데 既存의 國際政治秩序의 中軸를 이룬 冷戰體制-또는 미소 兩極化 體制-가 瓦解되어 감에 따라 韓國統一을 爲한 韓半島의

---

註9) 李用熙, 一般國際政治學(上), 서울, 一潮閣  
1962. PP. 97-99

內·外的 條件이 肯定的으로 充足되어 가기 시작 하였고 우리의 統一努力에 새로운 活氣를 賦與하고 있다.

이러한 狀況은 70年代에 들어와서 보다 明確히 나타나고 있는바 즉 그것은 韓半島 周辺의 國際力学關係가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促求하는 方向으로 再編成되고 있다는 點이다.

## 2. 條件의 變化

韓半島를 中心으로한 外的條件의 變化에 關해서는 韓半島와 密接한 歷史的 關係를 保持해 왔던 美, 中共, 소련의 態度를 注視할 必要가 있다. 10)

1972年 2月 27日 上海共同聲明에서 美國과 中共은 各己 南北 間의 平和指向을 願하고 있었다. 中共은 1965年以來 『革命은 當該 國家의 大衆의 일이며 主로 이들 自身の 힘으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테-제를 내걸고 있다.

반면에 소련의 경우는 「모스크바」 共同聲명의 「美·소 關係의 原則」에서 『國際緊張을 誘發할 事態를 兩國의 힘이 미치는 限

---

註 10) 美國과 中共 및 소련의 態度에 關해서는 Kim K.W., "Detente and Deterrence; Reflections on America's Asian Policy"; William E. Griffith, "The Policy of Soviet Union in East Asia"; Shinkichi Eto, "mainland China's new policies towards East Asia in the Post-Summit Era", 國際關係研究, 第3卷第3·4号 (通卷第8号), 서울, 國際關係研究所, 1972.10. PP.15~62

防止하는 것이 『兩國의 特別한 責任임』을 宣言했다. 11)

그러나 반면 소련은 北韓의 平和 8 個項<sup>12)</sup>을 되풀이 支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公式的인 宣言을 額面 그대로 받아 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중·소兩國의 實際行動과 國家的 利益을 考慮해 볼 때 그들이 韓半島에서 真正으로 戰爭을 願치 않고 있다는 結論이 相當한 說得力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韓半島의 外的條件의 變化에 隨伴하여 韓半島의 兩 政治體制面에서 볼 때 南北 共히 既存의 統一政策이 政權史的인 契機에서 出發하고 있는데 反하여 70年代의 統一努力은 民族史나 政權史를 併行 또는 一致시키려는 立場에서 抬頭되고 있다.

이러한 立場은 南北政治指導層의 努力에 充分히 反映되고 있으며 그 結果로서 7.4 南北共同聲明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註 11) 美·中共上海共同聲明(1972.2.27. 上海) 및 美·蘇「모스크바」共同聲明(1972.5.29. 「모스크바」) 參照

註 12) 北韓最高人民會議 第4期 5次大會에서 發表된 內容을 '72年 4月 12日 北韓外相 許淡이 8 個項으로 整理하여 指示한 것임. 이것은 60年代 全期間의 北韓의 統一戰略의 綜合임.

- 8 個項
- ① 美軍撤収
  - ② 雙方軍隊의 10萬以下 減縮
  - ③ 韓美·韓日防衛, 屈辱條約 廢棄 또는 無効化
  - ④ 自由選舉에 依한 統一中央政府 樹立
  - ⑤ 政治運動의 完全自由 保障 및 政治犯 無條件 釈放
  - ⑥ 南北間 通常, 經濟協助, 科學文化, 藝術·體育 等 相互 交流, 協助, 書信交換
  - ⑦ 過度的 措置로 聯邦制 實施
  - ⑧ 南北朝鮮 政治協商 會議



### 3. 前提의 設定 - 南北接觸을 위한 前提條件

勿論 前記한 韓半島의 內·外的 條件의 變化가 本 研究가 目的하는 바, 南北間의 接觸을 爲한 前提로서 尙상 意味있게 (significant) 움직인다고는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外的·內的條件의 變化는 南北間의 接觸과 無關한 各各 다른 次元의 運動法則으로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反面에 이 條件은 南北接觸을 위해서는 必須的 制約條件으로 남는다. 따라서 本 研究는 다음과 같은 前提下에서 南北間의 接觸에 關한 理論을 展開 하였다.

첫째 外的條件 즉 韓半島 周邊의 國際的 力學關係는 韓半島內의 緊張緩和의 追求와 強大國들간의 相互協調를 模索하는 方向으로 繼續해서 나아갈 것이다.

둘째 南北間의 政治指導層은 統一努力을 繼續할 것이며 統一에 關한 한 諸 問題에 相互 協助할 것이다.

以上の 두가지의 前提條件을 假定할 때 비로소 統合을 위한 方便으로서의 南北間의 接觸이 그 意義를 갖게된다. 여기서 南北間의 接觸을 위한 外的條件을 "E" 南北의 政治指導層의 政治的 努力을 "F"라 하면 南北間의 接觸의 可能性 "X"는  $X = f(\dots\dots\dots) + E + F$ 로 表示될 수 있을 것이다. 13)

---

註 13) 南北間의 接觸可能性을  $X = f(\dots\dots\dots) + E + F$ 의 關係로 表示한 것은 앞으로 研究하고자 하는 接觸判斷基準의 範圍를 定義하기 위한 것이다. 本稿第三章 「接觸의 制約變數와 戰略變數」 參照

#### 4. 研究의 範圍

本 研究는 上記의 前提下에서 南北間의 非政治的 接觸에 關한 理論을 定立하기 爲하여 南北接觸을 爲한 理論的 類型을 定立하고 이 類型을 通한 몇가지 理論的 假說을 導出하는데 그 範圍를 限定한다. 그리고 本 研究는 統合의 初步的 段階로서 接觸을 把握하고, 그러므로서 領土的, 政治的인 側面을 排除한 非政治的인 領域에서의 南北接觸研究로 限定한다.

따라서 本 研究는 南北間의 統合에 關한 全般的인 理論을 究明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 第三節 研 究 方 法

本 研究를 展開하는데 있어서 基本的으로 다음 몇가지 原則에 立脚 하였다.

첫째로 可能한 概念과 概念間의 關係에 留意해서 概念間의 聯關 法則 發見에 努力 하였다.

둘째로 몇가지의 有意味한 假定( significant hypotheses )을 設定하여 이를 前提로 理論을 展開 하였다.

셋째로 周辺條件 및 狀況假定の 時期는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模索하는 現時點에서 出發한다.

넷째로 論據되는 主要 資料는 最近 國內外 學者들의 研究論文을 利用 하였으며, 또 지난 5個月間 國土統一院 인-턴으로 勤務하면서 公式·非公式 Seminar를 通한 主要 人事들의 討論過程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參考로 하였다.

다섯째로 概念間의 關係를 簡單히 하기 위하여 集合 理論의 記号나 수식 및 圖示를 使用 하였다.

여섯째, 理論의 展開에 使用되는 새로운 用語는 純粹히 筆者 個人의 必要에 依하여 처음 使用되는 것이 많다.

이것은 아직껏 南北接觸에 關한 理論的인 研究가 不實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아직껏 一般的으로 適合한 用語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 第四節 概念의 定義

여기서 概念의 定義라 함은 本研究에서 使用할 새로운 理論單位 (terms, units or concepts)에 關한 定義와 定義된 이들 理論單位와 (defined)과 周辺概念들과의 關係를 說明하는 것을 말한다. 14)

一般的으로 科學哲學에서는 定義된 概念이란 特定 概念을 構成하는 (consist of) 屬性이나 特徵 (properties or attributes)으로서 說明된 概念을 말한다. 15)

이와 反面에 操作的定義 (operational definition)는 어느 누구도 正確히 理解할 수 있도록 作用 또는 行爲 (operations or actions)의 集合으로 構成되는 서술 (description)로서 이루어진 指針 (instructions)를 말한다. 따라서 여하한 水準의 單位로 다만 便宜의 構成物에 不過한 것이며 獨自의으로 神秘的 實在性을 가지는 形而上學的 實體가 아니라고 본다. 16)

註 14) 여기서 周辺概念이라 함은 이미 使用되어 一般化 되어 있는 概念을 말한다.

理論單位에 關해서는 Robert Dubin, Theory Building, N.Y., The Prentice Hall, 1969. PP. 50~63 參照

註 15) 姜信攄, 「政治學的 理論單位와 方法論的 個人主義」行政論叢 第 10 卷 第 1 号,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72. PP. 236-8

Richard S. Rudner,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66. P. 14

註 16) 金海東, 調查方法論講義, 서울, 三中堂, 1971. PP. 45~56

本 研究에서는 科学哲學의 立場에서 理論을 構成코자 한다.  
따라서 可能한 諸般 概念을 그 屬性과 特徵을 中心으로 定義하려고  
한다. 다만 特定한 경우에 操作的 定義를 加味 하였음을 밝혀  
둔다.

勿論 여기서 定義된 것 以外에도 많은 概念들이 使用된다.  
그러나 여기서 定義된 以外の 概念들은 各 必要 部分마다 그때  
그때 定義하여 쓰여질 것이다.

### 1. 「接觸(contact)」의 概念

序論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接觸」의 概念은 相異한 二 體  
制間—특히 南北間—의 統合의 한 方便으로 쓰여진다.

그리고 雙方體制間的 「非權力體制的인 諸般 接觸(contact)」과  
「交流」를 包含한 動態的 概念으로 理解한다.

一般적으로 接觸을 主體別로 볼 때 「個人과 個人」, 「團體  
(group)와 團體」, 「國家와 國家」間的 接觸을 上程할 수 있  
다. 17)

또 反面에 國家間的 接觸을 內容別로 보면 「文化的 接觸」,  
「社會的 接觸」, 「經濟的 接觸」, 「政治的 接觸」의 諸 分野  
에서 國家 相互間的 關係로 把握할 수도 있다. 그러나 本 論文  
上에서의 接觸은 相異한 二 體制 즉 同一分析民族間的 關係를

---

註 17) 個人과 個人 또는 集團과 集團間的 接觸의 意味는 關係  
英語에서 「interaction」에 해당하는 概念을 우리 말로  
表記한 것이다.

말하고 同時에 政府의 主導 아래 團體 또는 個人間的 相互作用을 통한 非政治的 諸 分野에서의 接觸을 指稱하는 意味로 理解한다. 이와같이 接觸의 概念을 理解하는 前提下에서 接觸은 試圖의 面과 維持・擴大의 兩側面으로 区分된다.

接觸의 試圖라 함은 일단 特定한 接觸이 始作되는 것을 말하고 維持・擴大라 함은 이러한 試圖된 接觸이 同一 범주내의 分野와 方法으로 擴散되어가는 過程을 말한다.

따라서 前記한 諸內容을 綜合化하면 南北間의 接觸이란 統合의 初步的 段階로서 試圖와 維持・擴大를 抱括하는 南北間의 非政治的 相互作用 關係를 意味한다.

## 2. 接觸・統合 ( integration ) 및 統一 ( unification ) 의 關係

一般的으로 南北間의 統合이라 함은 相異한 兩体制의 政治的, 領土的, 非政治的인 單一化를 意味한다.

反面에 統合의 初步的 非政治的 統合 段階에서 窮極的 政治的 統合 段階에 이르는 全 過程을 實踐的, 政策的 概念에서 把握할 때 이것을 「統一」의 概念으로 본다. 따라서 統一을 이러한 實踐的 政策的 概念이라고 할 수 있다면 統合은 보다 理論的인 概念으로서 窮極的 統合 段階까지 到達하는 結果 ( consequence ) 또는 過程 自体로서 把握할 수 있다.

그리고 初步的 統合 즉 權力的, 領土的 側面을 排除한 非政治的 側面의 統合의 方便으로서 接觸의 概念을 把握한다.

統合과 統一에 關한 限 이러한 論旨에 對峙되게 把握하는 많은

例를 찾아 볼 수 있다. 18)

그러나 本 論文에서 把握하고자 하는 統一의 概念은 冷戰時代의 統一의 概念- 즉 既存의 勝共, 赤化 統一 또는 名分的인 口號로 서의 統一概念 등 - 은 權力的, 領土的으로 南北을 單一化 하려 는 것을 意味 하였다는 데 反해 緊張緩和 時代의 統一의 概念은 領土的, 權力的 統一을 當分間 排除하고 있다는 點이다.

즉 이것은 南北間의 窮極的인 單一化를 實現하기 爲한 前段階로 서 南北 各 體制가 現實的으로 相對方을 部分秩序<sup>○○○○</sup> 19) 로서 認定해야 한다는 點에서 볼 때 既存의 領土的·權力的 統一의 概念으로서는 이러한 現實을 說明하기 힘들다. 따라서 統一의 概念을 南北間 의 統合을 爲한 實踐的·政策的 概念으로 把握하므로서 現實的인 緊張緩和時代의 南北關係를 說明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南北 體制 相互間의 接觸의 問題를 提起함에 있어 理論的으로 連結시켜 준다 하겠다.

註 18) 統一의 概念을 ①國土의 統合, ②統治權力的 一元化 ③社會의 同質化로 把握하는 見解가 있다. 統一朝鮮新聞社 編, 統一朝鮮年鑑('65~66), 東京 PP.186~7.

註 19) 部分秩序理論; 1960年代 後半期에 와서 東獨의 體制 安定 化와 併行하여 西獨의 院內外에서 「事實上的 承認」形式으 로 東獨에의 接近論 支持者가 增加, 이에 맞추어 國法理 論에서도 「部分秩序理論」(Teilordnungstheorie)이 抬頭, 이 理論에 따르면 過度期동안 두 部分秩序(部分 國家· 臨時政府)가 形成된 것이고 兩部分 秩序는 相互 外國이 아니라는 概念을 內包하고 있음. 이 概念의 目的은 一般의 窮極的인 獨逸의 統合에 이르기 까지의 「暫定的인 政策」으로 理解됨. 中央情報部, 東西獨接觸關係資料集(接觸資料 1) 1971.P.18

### 3. 接觸의 判斷基準 ; 同質性, 政治文化, 技術增進

接觸의 判斷基準이라 함은 南北間의 非政治的 諸 接觸形態를 想定할 경우 이것들이 接觸의 試圖에 있어서나 또는 接觸을 維持시키고, 擴大시키는데 있어서 그 制約面과 機能面에서의 與否를 判斷하기 爲한 基準을 말한다. 本 論文에서는 이러한 基準으로서 南北間의 同質性, 政治文化, 技術增進의 세 가지를 設定하고 있다.

#### 가. 同質性(identity)의 概念

本 論文에서 南北接觸의 判斷基準으로 使用하고 있는 南北間의 同質性의 概念은 두가지 次元에서 定義한다. 즉 하나는 民族史的인 立場에서 南北韓間에 共通으로 갖고 있는 民族的 同質性- 單一文化, 傳統, 言語, 血統, 地緣關係 등-을 意味하며, 다른 하나는 南北韓 各己 近代文明을 導入하므로써 必然的으로 招來되는 工業技術 등 南北의 理念差異와는 無關한 共同價值領域을 意味한다.

#### 나. 政治文化의 (Political culture)의 概念

一般的으로 政治文化는 政治體制를 狀態化(conditioned)시키는 政治的 價值(value), 信念體系(belief system), 象徵主義의 세가지 屬性으로 說明된다.<sup>20)</sup>

그런데 南北韓의 平和的 統一接近方法을 採擇하는 경우에는 南北韓은 共히 相對方의 體制를 하나의 部分秩序로서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는 論理에 到達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立場은 南北韓 雙方이 各己 自己의 體制를 守護하는 立場에서 떠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 즉 體制守護의 立場- 前提하지 않고는 南北接觸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本 研究에서는 南北韓 接觸過程에서 必須的으로 提起되는 이러한 體制守護의 立場을 政治文化의 概念을 使用해서 說明하고자 한다.

註 20) 本稿 第三章 「政治文化의 一般的 概念」



이것은 政治文化가 政治体系의 狀態化 시키는 重要한 變數로 把握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政治文化의 概念自体는 南北韓이 지난 4半世紀동안 相異한 理念体制下에서 各己 形成해온 自由主義的 政治文化와 共產主義的 政治文化를 指稱한다.

따라서 여기서 使用하는 政治文化는 南北韓接觸을 想定할 경우 双方体制가 各己의 体制守護的 立場에서 갖는 既存 4半세기동안 새로이 形成되어온 政治文化를 말하며 그외에 南北接觸을 通하여 南北韓間에 共同으로 再形成될 수 있는 民族主体意識이나 南北共同意識 등은 여기서 使用하는 政治文化의 概念으로 부터 分離한다.

다. 技術增進(skill promotion or positive function)의 概念 南北接觸의 세 번째 判斷基準으로 使用한 技術增進 또는 肯定的機能(skill promotion or positive function)의 概念은 一般的 抽象的 概念으로서 아를테면 南北接觸이 波及시키는 肯定的 機能- 統一指向的 機能 -을 意味한다.

위에서 말한 南北接觸의 肯定的 機能이란 具體적으로 南北間에 接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特定한 接觸形態가 갖는 波及機能가운데 南北相互間에 同等하게 體制교란 또는 體制마찰을 일으키는 소위 接觸의 逆機能을 排除한 것을 意味한다.

또한 技術增進의 概念속에는 特定接觸形態의 接觸過程에서 얻은 經驗이나 知識이 또 다른 새로운 接觸을 始作케 하거나 同一領域 內的 接觸을 維持하고 더욱 擴大시키려는 意慾이 內包되어 있다.

#### 4. 接觸形態, 接觸分野, 接觸方法

南北間의 接觸에 있어서 그 接觸의 범주를 分野面과 方法面으로 나누어 考察할 수 있다.

文化・經濟・社會 등은 接觸分野로서 理解되고, 人的往來를 통한 接觸이나 物資交流를 통한 接觸 등은 接觸方法으로서 把握한다.

그리고 接觸形態라 함은 이 分野와 方法의 各已 보다 細分된 屬性이나 特徵間의 相互 結合된 形態를 指稱한다. 이러한 接觸形態 가운데 세가지의 接觸基準을 充足시켜 주는 形態는 2) 接觸可能形態라 하고 그 外의 形態는 接觸聯關形態라 하여 区分한다.

따라서 이미 言及한 南北間의 接觸分野와 方法의 Feasibility 檢討는 接觸可能 形態와 聯關形態를 区分하고 接觸可能形態의 可能性의 程度를 比較하는 것을 말한다.

---

註 21) 세가지의 接觸基準을 充足시켜 준다 함은 그것이 同質性을 갖고 相互 政治文化에 影響을 미치지 않으며 그 機能面에 있어서 南北接觸技術에 順機能的인 役割을 할 수 있음을 말한다. 보다 詳細한 것은 本稿 第三章 參照

## 第二章 理論的 背景

### 第一節 統合과 接觸

#### 1. 機能主義 統合理論의 一般的 考察

既實 機能主義 (functionalism) 理論<sup>1)</sup>의 根本的 前提는 國家와 國家間의 平和를 維持하고 나아가서 社會的인 統合을 實現하는 데 있다. 그러기 爲해서는 國家間의 直接的인 政治的 協商을 통한 統合接近方式보다는 社會的, 文化的 諸般分野의 間接的 接觸을 통해서 國家間의 窮極的인 政治的 統合 領域으로 擴大시켜 나아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sup>2)</sup>

科學哲學의 立場에서 볼때 機能主義라 함은 「非政治的 接觸」과 「統合」의 두 概念間의 關係法則에 關한 理論이다. 그러나 特記할 點은 機能主義 理論이 國家 相互間의 統合에 關한 關係法則을

---

註 1) 機能主義라는 말은 이 論文에서 使用하는 경우 이외에도 社會科學 全般에서 使用되고 있다. 例로서 "structural functional analysis"를 들 수 있음.

그러나 本 論文에서는 David Mitrany에서 始作된 地域統合 내지 國際機構의 統合理論으로서 機能的主義理論을 말한다. 參照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Quadrangle, 1966. 및 Earnest Haas, Beyond the Nation-State : Function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64.

註 2) 우재승, 機能主義理論과 南北再結合, 國土統一院, 1972.8, pp.3 ~ 4.

說明하는 것이며 또한 國家間的 相互協力이 可能하고 接觸이나 對話가 自由로운 開放體制 相互間的 統合理論이라는 點이다.

따라서 機能主義는 이러한 開放體制間的 接觸을 통한 非政治的 分野의 協力過程에서 일어나는 運動法則으로 說明될 수 있으며, 同時에 이 運動法則은 接觸이 可能한 前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機能主義的 研究領域에서는 "어떻게 接觸이 이루어지느냐?"는 問題에 関한 것은 排除하고 있다.

機能主義論者에 依하면 統合의 概念把握을 「自治的 社會團體가 그 團體相互間的 關係에 있어서 自治權이 漸次 侵蝕되어 새로운 綜合體制에 吸收되는 變質過程」이라고 하고 이것을 政治學的 意味로는 「獨立된 政治團體 또는 그에 準하는 政治團體 相互間的 關係가 變質되어 새로운 綜合體制로 吸收되어 가는 過程」이라고 한다. 3)

反面에 非政治的 接觸은 國家間的 統合을 實現하기 爲한 한 方便으로서 社會的, 文化的 諸分野의 非政治的 接觸機構를 통한 相互協力 또는 相互活動을 말한다.

그러나 窮極的인 機能主義의 本質은 이러한 非政治的 接觸機構를 통한 接觸과 統合과를 연결하는 關係를 說明하는 關聯法則으로서 波及效果 (spill-over effect) 4) - 이것이 機能主義 또는 機能的 統合의 本質이다 - 를 提起하고 이것에 依해 非政治的 接觸이 窮極적으로 政治的 統合段階로 指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註3) 우재승, 統合理論의 比較研究와 韓國統一-接近方法, 國土統一院, 1972.6, p.6.

註4) Haas, 全揭書, pp.3 ~ 85.

機能主義的 統合理論은 다음 몇가지로 그 特徵을 要約할 수 있다.

① 機能主義는 統合과 接觸과의 關係를 說明하는 運動法則이다.

② 機能主義는 이러한 運動法則을 이루는 核心을 「波及效果」로서 說明한다.

그리고 이러한 波及效果는 非政治的 接觸機構를 통한 接觸過程에서 發生한다고 보고 非政治的 接觸을 통한 間接的인 方法이 直接的인 政治的 統合努力보다 效果的이라고 본다. 따라서 政治的 課業과 非政治的인 課業을 分離하고, 非政治的 課業의 接觸에 力點을 둔다.

③ 機能主義는 開放體制 相互間의 統合을 爲한 法則을 說明하는 것이다. 따라서 接觸이 이루어지는 方法에 對한 解答을 주지는 않는다.

④ 機能主義 理論은 非政治的 接觸機構를 통한 相互의 協力은 새로운 經驗을 얻고 이러한 經驗이 波及의 動因이 된다고 본다.

## 2. 機能主義 理論의 韓國的 接近

南北間의 接觸은 機能主義的 理論背景下에서 考察할 수 있다. 前記한 바와 같이 一般的으로 機能主義法則은 開放社會間의 統合理論으로서 同一開放體制 國家相互間의 統合을 目的으로 한다. 이와 反面에 南北間의 統合은 相互 異質的인 共產, 自由 兩體制間의 統合에 그 目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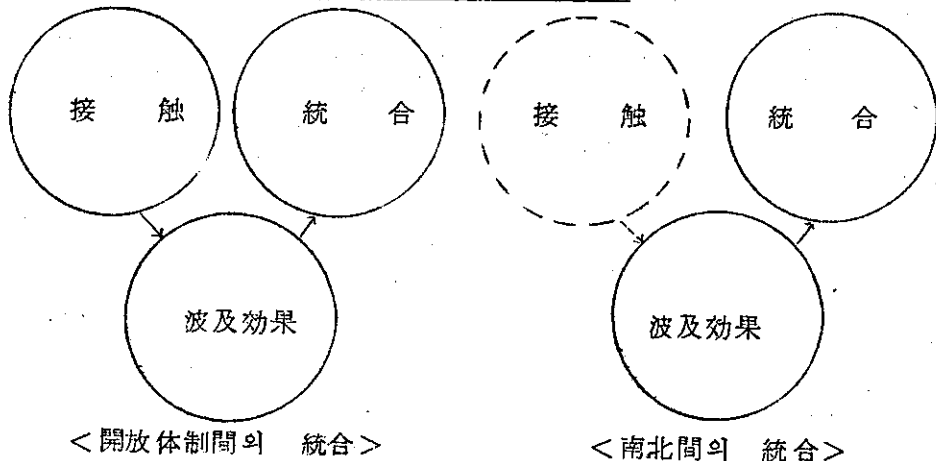
따라서 開放體制를 갖고 있는 國家相互間의 統合理論으로서 適用

되는 機能主義가 相異한 體制를 前提로 하는 南北間의 統合理論으로서 適用되기에는 몇가지의 問題點이 提起된다. 즉 그것은 첫째로 共產國家인 北韓社會의 閉鎖體制를 漸次로 開放體制로 轉換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 南北間의 窮極的 統合이 이루어지기 爲해서는 相互 異質的인 體制 相互間에도 接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5)

勿論 北韓社會가 開放體制로 바뀌어야 한다는 機能主義的 論理는 本 研究가 相異한 南北體制를 前提로한 研究라는 點에서 볼때 南北接觸의 研究領域과는 別個의 問題에 屬한다. 다만 이같은 機能主義的 立場에서 보면 南北間의 統合을 爲해서는 前段階로서 南北間의 接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論理에 서게 된다. 이 關係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表 2-1)

<表 2-1>

統合과 接觸과의 關係



註 5) 우재승, 機能主義理論과 南北再結合, p.7.

南北間의 接觸을 想定할 경우 이것은 다음의 두 側面에서 보다 細分하여 考察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開放社會間의 接觸을 論할 때는 接觸이 單純히 統合을 爲한 條件 내지 方法으로서의 意味를 가질 뿐이며 相互의 接觸을 本質적으로 妨害하는 要因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南北間의 接觸은 相互의 體制가 다르다는 點에서 接觸의 過程 自体가 相互의 摩擦, 對立을 招來할 餘地가 恒常 存在하므로써 開放體制國家間의 接觸과는 差異가 있다. 이와 反面에 南北은 歷史的인 單一民族의 經綫를 갖고 있다는 點에서 볼 때는 全혀 生소한 國家相互間의 接觸과도 差異가 있다. 前者의 경우는 南北間의 接觸이 開放體制國家間의 接觸의 경우보다 어려움을 意味하는 反面에 後者の 경우는 보다 容易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南北間의 接觸은 恒常 前記한 두가지의 要素를 考慮해야 할 必要가 있다고 하겠다.

南北間에 機能主義 理論이 適用되기 爲해서는 다음 두가지의 本質的인 條件을 考慮해야 할 必要가 있다.

첫째로는 南北間의 接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南北間의 接觸이 이루어 지기 爲해서는 두가지의 要素 즉 相異한 體制間의 接觸이라는 點과, 同一分斷民族間의 接觸이라는 特殊性을 考慮해야 할 것이라는 點이다.

따라서 이같은 두 條件을 充足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南北間에 適用될 수 있는 새로운 接觸理論을 定立해야 할 必要가 있다.

## 第二節 接觸의 一般理論

G. Hormans는 그의 理論書인 The Human Group에서 社會團體의 構成員의 行態分析을 試圖하여 接觸(interaction)과 共感(sentiment) 및 活動(activity)의 關係에 關한 假說을 檢証하였다. 7) 그는 行態分析의 概念構造(conceptual scheme)의 要素를 集團의 構成員과 接觸·共感·行動으로 分類하고 ① 個個의 事件의 敘述段階 ② 一定한 期間동안 限定된 範圍의 制限人員에 對한 普遍的 行態의 考察段階, ③ 一般的인 group에 適用될 수 있는 假說의 定立段階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다.

Hormans는 두사람間的 接觸(interaction)이 많으면 많을수록 一般的으로 相互間에 느끼는 共感(sentiment of affection)의 程度도 커진다는 分析假說을 相定하여 몇個의 小集團(small group)을 對象으로 假說을 檢証하고 있다. 그가 얻은 結論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즉 group 個個人 相互間的 接觸頻度(frequency of interaction)가 增加하면 할 수록 相互間的 共感은 더욱 強化되고, 同時에 共感에 基盤하여 遂行하는 業務活動(activity)을 增加시킨다. 8) 이 關係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表 2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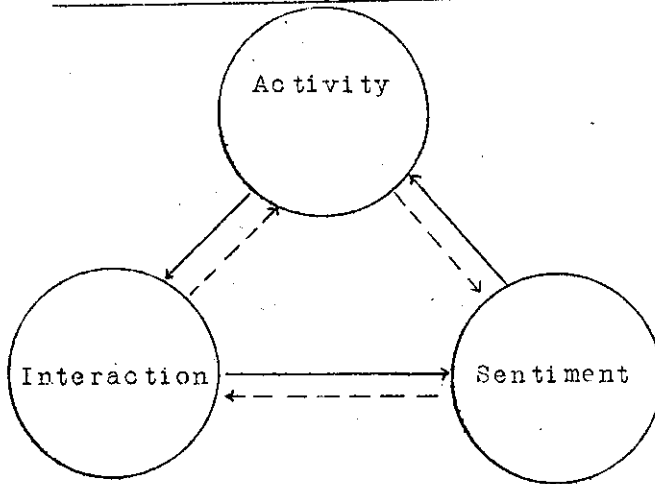
---

註7) George C. Hormans, The Human Group,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50.

註8) 上掲書, p.444.



<表 2 - 2 > Group 内の 接触・共感・活動과의 關係



이러한 group 内の 構成員의 行態에 對한 分析은 南北接觸理論의 定立을 爲한 理論的 根拠를 提示한다. 여기에 因한 보다 細部的인 內容은 第三章에서 「技術增進과 接觸」을 說明하는 過程에서 다루기로 한다.

### 第三節 南北接融을 爲한 基礎의 設定

#### 1. 南北韓關係의 二重構造的 性格

무릇 南北統一의 問題는 相異한 體制 - 自由·共產 - 간의 統合의 問題이며 同時에 單一分斷民族의 再結合이라는 特定한 意味를 內包한다. 이것은 南北間의 關係를 單一民族으로서 主体意識을 表榜하는 民族史의 側面과 自由·共產의 兩理念의 對立關係로 表示되는 世界史의 側面에서 考察할 수 있음을 말한다.

既存의 國際關係가 兩極化 (bi-polarization) · 冷戰등의 用語로 表現되는 自由·共產의 理念的 對立의 秩序下에서는 南北關係의 基本的인 性格은 民族의 問題를 陔外視한 理念的 對立에 不遇하였다. 그러나 最近의 世界史의 흐름이 國家實利를 漂榜하는 脫ideology의 秩序 即 一種의 國家主義로 되돌아감에 따라 南北韓關係는 民族의 性格을 되지 않을수 없게 되어 理念次元과 民族次元의 兩面性을 考慮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南北間의 諸般關係를 「同一分斷民族」間의 關係로 把握하거나 또는 「相異한 體制」間의 關係로 把握하므로써 南北關係의 二重의 構造를 이루게 하는 根柢가 된다.

흔히 南北關係를 「分斷同一民族」間의 關係로 把握할 때 이것은 單一民族이라는 民族史의 單一體感이 強調되는 概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南北이 「韓民族」으로서 느끼는 歷史的·傳統的 單一意識이 存在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民族」이라는 概念을 同一한 言語·齊一한 慣習·傳統을 가지고, 그리고 血統이나 地緣

關係가 있는 歷史的 「文化共同体」로 把握할 수 있는 限 南北은 韓民族으로서 文化・歷史・傳統에서 同質性을 갖고 있음을 말한다.

이와 反面에 南北韓關係를 「相異한 異質體制」間的 關係로 把握할 때 이것은 理念的인 側面이 보다 強調된다. 即 「分斷民族」間的 關係가 單一民族이라는 前提를 수반하는 反面에 이것은 異質的인 自由・共産의 理念體制가 前提가 됨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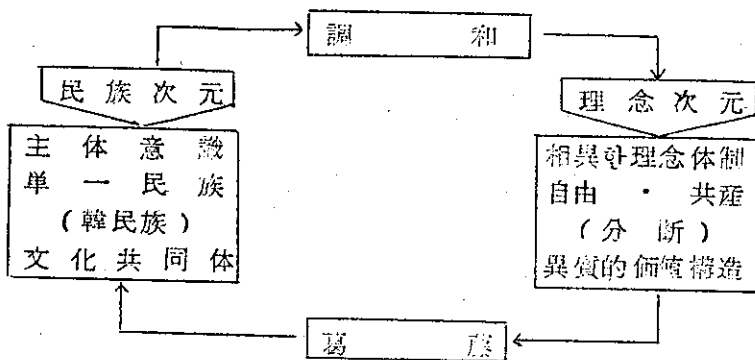
異質的인 理念・體制는 諸分野에 있어서 南北間的 異質的인 價值構造를 形成하고 各已 다른 政治文化를 形成해 왔다.

다시말하면 社會發展의 價值觀을 달리하고 있는 政治權力과 그의 支持勢力이 分斷된 國土의 兩側에서 서로 和解할 수 없는 異質的인 性格을 갖고 固着되고 있는 點이다. 이러한 相異한 理念・體制는 한편으로 政治宣傳의 메카니즘을 통해 南北相互間的 敵對感 내지 不信感을 助長하므로써 南北間的 對立・葛藤의 根柢가 된다.

南北間的 關係는 위의 兩側面에서 同一民族이라는 次元과 相異한 理念・體制라는 次元의 二重的 構造로 把握할 수 있다. (表 2 - 3)

<表 2 - 3>

南北韓關係의 二重構造의 性格



單一民族으로서 南北間의 關係를 把握할때 이것은 多分히 調和의 側面에서 南北韓關係를 肯定的으로 誘導할 수 있는 根拠로 볼 수 있는 反面에 理念對立關係로서의 南北韓關係를 把握할 때는 相互의 寫藤( conflict )의 側面을 지니고 있으며 同時에 南北韓關係를 否定的으로 誘導할 수 있는 根拠가 된다. 이러한 南北關係의 二重構造的 性格을 本 論文이 目的하는 바 南北接觸理論定立을 爲한 理論的인 「틀」로서 提起하고자 한다.

## 2. 南北接觸基準의 選定

南北間의 接觸을 前記한 南北韓關係의 二重的 構造에서 把握하면 다음과 같다. 南北韓間의 接觸을 實現하려면 우선 그것은 南北韓關係의 二重構造的 性格 - 民族的 次元과 理念對立的 次元 - 으로 말미암아 同質性( 民族的次元 )의 制約과 體制守護( 理念對立的 次元 )의 條件을 充足시켜야 한다. 이 두가지의 問題( 同質性的 制約과, 體制守護의 條件 )는 南北韓間의 接觸이 一般的 機能主義理論에서 論하는 開放體制 國家 相互間의 接觸과 同一하게 取扱할 수 없는 特徵이다.

開放體制 國家 相互間의 接觸은 接觸이 이루어진 後의 波及效果라든지 接觸을 통한 成功感 내지 接觸度( frequency of contact ) 등의 關係作用에 關해서만 問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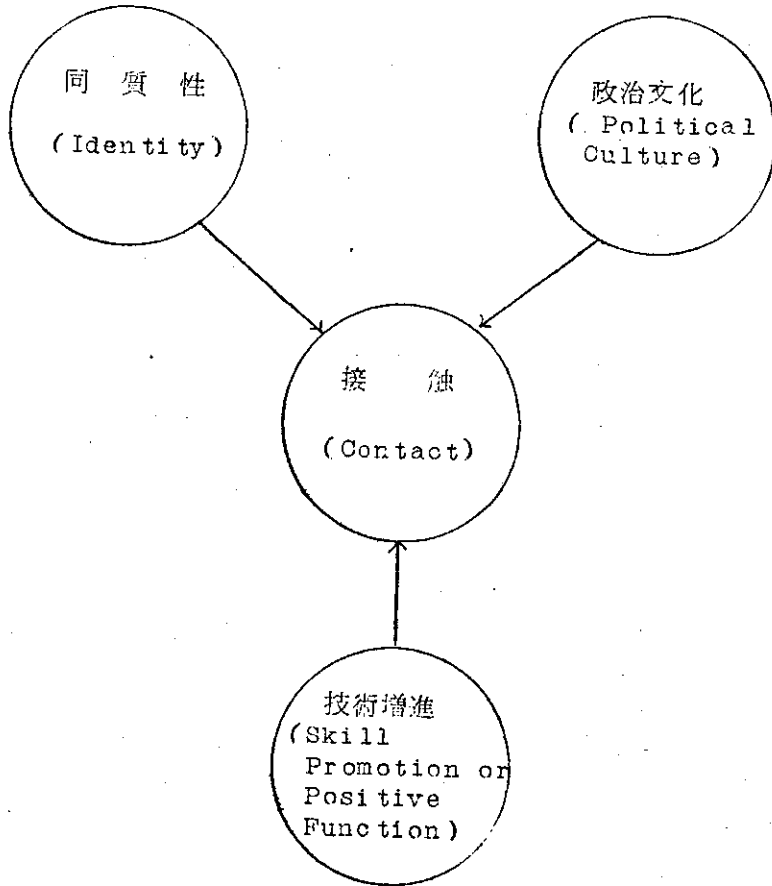
勿論 南北韓間의 接觸理論을 定立하는데 있어서 開放體制 國家間의 接觸理論을 排除하지는 않는다. 다만 南北間의 接觸이 南北이 갖는 特殊한 條件下에서 - 즉 南北關係의 民族・理念의 二重構造的 性格 - 이

루어져야 함을 勘察할 때 開放體制 相互間에 接觸理論으로는 南北韓  
間의 接觸에 關한 一貫性있는 假說을 도출하는데 制約이 있음을  
意味한다.

따라서 本 研究가 目的하는 바 南北韓間의 接觸理論의 定立이라함  
은 一般的인 開放體制 國家 相互間의 接觸理論을 導入하고 여기에다  
南北韓間의 民族·理念의 二重的 構造에서 把握되는 同一性( identity )  
과 政治文化의 側面을 부가하여 「同一性( identity )」, 「政治文  
化( political culture )」, 「技術增進( skill promotion )」<sup>9)</sup>  
의 3個의 基準을 同一次元에서 設定하여 이들간의 相互關連法則을  
樹立하려는 것이다. 이 세개의 基準과 接觸과의 關係는 다음과  
같다. (表2 - 4 )

---

註 9) 여기서 「同質性」이라함은 同一한 言語, 文化, 伝統, 血緣, 地  
緣 등의 民族史的 次元에서 南北이 갖는 同質성과 産業化,  
工業化등의 近代化를 指向하는 國家들의 共同慾求面에서의 同  
一性を 意味한다. 그리고 「政治文化」라함은 具體적으로 自由·  
共産主義를 말하며 이것은 南北이 接觸할 경우 相互體制가  
갖는 體制의 變質로부터의 守衛하려는 立場을 說明하기 위한  
概念이다. 마지막으로 「技術增進」이라함은 接觸을 爲한 技術  
增進의 意味로서 特定接觸形態가 갖는 統一指向的機能을 指稱하는  
것으로서 南北接觸을 爲한 肯定的機能을 말한다. 本稿 第一章  
「概念의 定立」 및 第三章 「接觸의 基準」參照.



### 第三章 南北接觸을 爲한 價値의 定立

#### 第一節 接觸의 基盤

##### 1. 接觸과 同質性 ( identity )

一般的으로 南北間의 同質性 ( identity )은 歷史·傳統을 같이 해온 民族文化面에서의 同一性과,<sup>1)</sup> 理念·體制와 無關係로 近代化·産業化를 目標로 한 諸般工業技術 등에서 나타나는 價值構造面에서의 同一性으로 分類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南北間의 同質性은 民族·理念의 二重構造의 「틀」 속에서 考察할 수 있다. 同一民族으로서 갖는 同質性은 現實적으로 南北이 歷史的 共感을 느낄 수 있는 單一文化·傳統·言語·血統·地緣關係 등에 基盤한다. 이것을 民族文化面에서 南北이 갖는 同一性으로 把握할 수 있다.

反面에 相異한 理念·體制를 통한 相互의 理念對立의 側面에서 보면 비록 이러한 對立의 歷史를 통해 相互間에 異質的 價值構造를 形成하여 왔음에도 不拘하고 共히 近代化·産業化를 目標로한 工業技術 ( technology )分野에서의 同一性이 存在한다. 그리고 以外에도 理念對立과 無關係한 것으로서 海洋이나 氣象 등의 地理的·自然的인 同一性이 存在할 수 있다. 이러한 工業技術面에서의 同一性이나 地理的·自然的인 同一性은 南北間의 理念·體制의 問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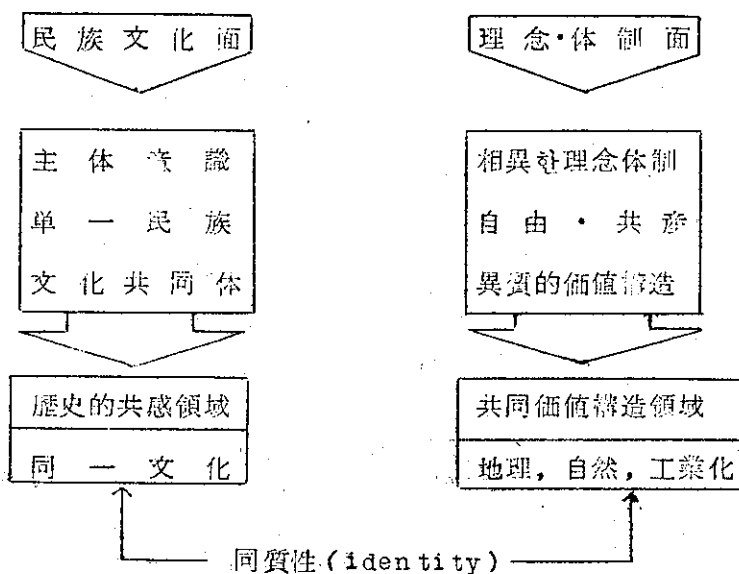
註 1) 金俊平, 「韓國統一의 意義와 諸問題」, 韓國統一의 理論的基礎, 亞細亞問題研究所, 1972, pp. 1~4. 上揭書, 金鍾益, 「韓國統一의 理論的 考察」, pp. 27~28.

따라서 南北이 共히 느낄 수 있는 領域이다. 즉 南北이 理念·  
 体制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共同으로 느낄 수 있는 共同價值構造의  
 領域이라고 表現할 수 있는 것이다.

以上을 南北關係의 二重構造와의 關係로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表 3 - 1)

<表 3 - 1> 南北關係의 二重構造와 同質性



一般的으로 開放体制國家 相互間의 接觸은 接觸對象에 對한 同一  
 認識에서 出發한다. 그러나 相異한 体制間의 接觸의 경우에는 接觸  
 의 對象 - 즉 接觸分野나 接觸方法 - 을 理解하는 各己의 價值體系  
 의 差異를 考慮해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南北間의 接觸의 경우

註 2) 여기서 接觸分野나 接觸方法에 關해서는 本稿 第一章「概念의



에도 같은 論理가 適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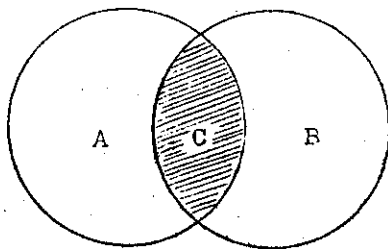
그러나 적어도 南北間의 接觸은 民族과 理念의 相互 矛盾되는 兩概念間의 二重構造에서 把握할 경우 肯定的인 民族이라는 同一性의 次元에서 否定的인 理念의 異質性을 解消시켜나가는 努力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선 南北間의 接觸을 爲해서는 民族文化面에서의 同一性 즉 歷史的으로 南北의 共感領域을 發見하여 試圖될 性質의 것 이기도 하다. 이것은 單一民族으로서의 主体意識의 面을 보다 強調함을 뜻한다.

同時에 南北間의 接觸은 이것을 南北의 統合을 위한 方便으로 생각하는 한 相互의 敵對感 내지 不信感을 助長하지 않는 範圍에서 試圖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는 南北이 相異한 理念· 體制의 影響範圍 바깥에서 接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것은 곧 理念·體制와 無關한 共同價值領域인 工業技術面이나 地理的, 自然的인 領域에서의 接觸이 보다 用易함을 뜻한다.

南北間의 接觸과 同一性의 關係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表3-2)

<表 3 - 2 >

南北接觸과 同質性



A ; 歷史的共感

B ; 共同價值

C ;  $A \cap B$

定義」 및 第二章 第二節 「接觸可能形態와 接觸範圍形態」 參照.

"A","B","C"는 南北間의 接觸이 同質性을 갖는 條件이다. 즉 이것은 南北間의 接觸이 이루어지기 爲해서는 特定한 接觸 또는 接觸의 對象이 "A" "B" "C" 중의 어느 한 條件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圖示에서 나타난 "A" "B" "C" 중에서 "C"의 條件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신 "A"와 "B"의 경우에는 接觸의 容易度가 "C"보다 훨씬 弱하다고 할 수 있다.

## 2. 接觸과 政治文化 ( political culture )

### 가. 政治文化의 一般的 概念

政治文化 ( political culture )의 學問上의 概念은 行動者와 行動의 狀況의 相關關係를 前提로 한 것으로서 社會의 一般文化中에서도 "如何히 統治할 것인가?"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關한 國民의 價值 ( values ), 믿음 ( beliefs ), 感情的 態度 ( emotional attitudes )를 말한다. 3)

Samuel H. Beer는 政治文化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사람은 共通된 人間性 ( human nature )에서 어떠한 感情的 衝動, 知的能力 그리고 道德的 傾向을 가지고 있으며 多少 變更을 加하면서 그것을 教育과 模倣을 通하여 다음 世代에 伝達한다. 이것은 感情的 態度, 價值, 믿음의 問題이며 社會文化는 이것으로서 이루어 진다. 그리고 社會의 一般文化中의 한 面 즉

註 3) 尹天柱, 韓國政治體系, 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1961, pp. 10~13.

部分文化로서의 統治는 어떻게 行해져야 하느냐?, 統治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의 問題가 提起되며 이러한 問題에 關한 것이 곧 政治文化이다.」<sup>4)</sup>

그러므로서 政治文化는 社會의 一般文化처럼 價值, 믿음, 感情的 態度로서 構成된다. 이 各各의 要素는 手段( means )을 強調하는 要素와 目的( ends )을 強調하는 것으로 區別된다.

즉 政治的 價值에 있어서도 어떠한 拘束力을 가지며, 服從을 要求하는 道德的 性質을 띠고 權威있는 決定을 形成, 執行하는 節次에 關한 價值概念( conceptions of authority ) - 이를테면 憲法에서도 權威的 決定을 形成하고 執行한다는 構造에 關한 價值概念이 있을 수 있다 - 이 있는 한편 이러한 決定이 奉仕하는 一般目的에 對한 價值概念( conceptions of purpose ) - 이를테면 私有財産制度의 保存, 言論의 自由, 外敵에 對한 防禦와 같은 것에 關한 概念 - 이 있다. 그리고 各 政治體系에 있어서의 權威概念의 價值 및 一般目的 概念의 價值는 場所와 代에 따라 各 體制의 政治行態, 政治活動도 달라진다. <sup>5)</sup>

反面에 믿음이라는 것은 一種의 信念體系( belief system )을 말한다. 政治的 價值에 두 概念이 있듯이 믿음에도 權威概念의 것과 一般目的概念의 것 두가지가 있다. <sup>6)</sup> 例를 들면 西歐 民主主

---

註 4) Samuel H. Beer,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 in Patterns of Government, ed., N.Y., Random, 1958, p.12.

註 5) 尹天柱, 韓國政治體系序說, 서울, 文運堂, 1961, pp.172~173.

註 6) 上篇書, p.174.

義 國家의 경우 그 理想에 있어서 大部分의 사람들이 " 投票하여  
야 한다 " 는 當爲的인 概念은 前者에 屬하는 것이고, 大部分의 사  
람들이 " 어느 程度의 合理性을 가지고 政治에 參與할 수 있다 "   
는 믿음은 後者에 屬한다.

元來 믿음의 體系는 價値의 體系보다 變하기 쉬우며 새로운 知  
識에 依하여 變한다. 科學的 知識 및 技術의 發達로 人間生活의  
變化가 많은 西方社會에서는 옛 價値의 바탕이 되어 있는 옛 믿  
음이 새로운 知識에 依하여 變化하여 새로운 믿음으로 化하고 結  
局은 이 새로운 믿음에 따라 옛 價値가 作用하여 變하는 現象을  
본다. 이와 反對로 外來的 要素와 傳統的 固有의 要素가 混合되  
어 있는 政治社會에서는 政治文化도 混合的이다. 混合的 政治文化  
에서는 價値와 믿음의 不調和가 發生한다. 7)

어떠한 政治體制도 이에 대한 人民의 感情的 支持 또는 그에  
알맞는 態度 즉 理致를 따져서 說明할 수 없는 愛國主義 또 國  
家의 目的, 價値, 믿음에 대하여 無條件 支持하고 指導者에게 服從  
하는 態度 등이 없이는 維持되기 어렵다. 우리의 經驗에 비추어  
볼 때 指導者에 대한 崇尚, 國旗, 國歌, 記念碑, 銅像, 公共儀式 또  
는 行事 등이 지닌 象徵主義는 人民의 團體行動을 통해서 政治的  
團結을 強化한다.

이러한 感情的 行動에 依하여 政治體制를 強化·維持하고, 逆으로  
그에 따른 價値·믿음을 形成한 例는 나치스의 政治에서 찾아 볼

---

註 7) 尹天柱, 韓國政治體系序說, 서울, 文運堂, 1961, p.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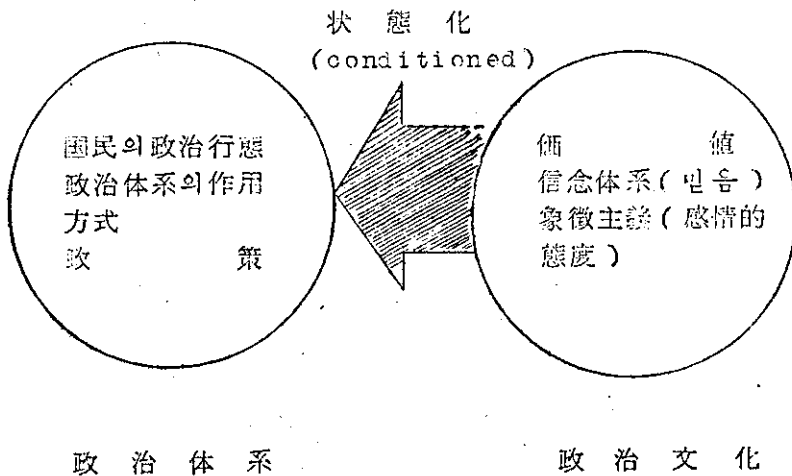
수 있다. 그러나 正常的으로 着想의 變化에 이어 價值의 變化, 그리고 마지막으로 感情의 變化가 달라진다.

以上에서 說明한 것 처럼 한나라의 人民들의 政治行態·活動등을 그들의 政治的 價值, 믿음體系 및 感情的 態度 또는 象徵主義에 依하여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것을 構成要素로 하는 政治文化는 一般的으로 集團의 政治行態에, 또 政治體系의 作用方式에 큰 影響을 준다 하겠다. 따라서 政治生活에 있어서의 權力作用 및 關心, 또 이 兩者에 依하여 生産되는 政策도 政治文化에 依하여 어떠한 狀態를 取하게 되며, 結局 한 나라의 政治體系는 政治文化에 依하여 狀態化( conditioned )된다고 볼 수 있다.

政治文化에 對한 一般的 概念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表 3 - 3 )

<表 3 - 3 >

政治體系와 政治文化



## 나. 南北間의 接觸과 政治文化

政治文化의 概念에 着察할 때 南北間의 接觸은 體制守護의 問題와 關聯된다. 8)

韓半島의 分斷된 兩個의 政治體制는 지난 4半世紀동안 相異한 政治理念과 支配體制에 依하여 靈動的으로 硬直化 내지 異質化되어 버렸다. 따라서 雙方體制의 政治에 對한 價值와 信念體系 및 感情的 態度 - 즉 政治文化 - 는 全히 相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9)

政治文化가 個人 및 集團의 政治行態에 또 政治體系의 作用方式에 큰 影響을 준다는 前提下에서 南北間의 接觸의 問題를 介在시킬 때 이것은 곧 各己의 體制守護라는 側面과 南北接觸이라는 側面에서 兩側面間의 矛盾을 배태하게 된다. 이것은 相異한 南北間의 接觸은 基本的으로 相互의 體制變質의 要素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雙方體制가 各己 自己體制를 保存 내지 守護하려 하는 한 南北間의 接觸은 政治文化的 要素를 無視한채 이루어 지기는 힘들다.

歷史적으로 지난 四半世紀 以上の 分斷狀態下에서는 基本的으로 南北間의 關係를 我邦體制의 肯定과 他邦體制의 否定을 通해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各己 體制의 政治名分이었는데는 勿論이고 보다 더 重要한 것은 이전 名分을 標榜하는 各 權力集

註 8) 本稿 第一章 「概念의 定義」 參照.

註 9) 가장 쉽게 들수 있는 것이 言語의 異質化다. 이것에 關해서는 國土統一院, 國土統一, 通卷第 23~29 号 (1972年 5月~11月), 參照.

團이 南北에서 設得力있는 現實 政治勢力으로 人民에게 理解되어 왔다는 點이다. 즉 이것은 雙方의 人民이 갖는 政治文化的 要素인 價值, 믿음, 感情的 態度에 있어 相互 對峙되어 왔음을 뜻한다.

政治的 價值的 權威的 概念이 民主·共產의 理念에 立脚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理念下에서 一般目的인 概念의 價値도 南北은 相互 異質的이다. 믿음에 있어서도 南北이 갖는 信念體系가 相異하다. 그리고 政治文化的 一般的 概念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北韓의 경우는 外部로 부터의 一切의 知識體系를 차단당하고 오로지 金日成 個人的 偶像化 政策에 依한 金日成 唯一思想만이 北韓人民의 信念體系로 남아 있다. 特히 政治文化的 諸要素가 象徵主義에 吸收되어 "金日成 아버지" 또는 "偉大하신 首領 동지이신 金日成" 등의 口號가 生活化되고 있다. 즉 北韓의 政治文化는 한마디로 金日成 唯一思想의 生活化로서 集約할 수 있는 것이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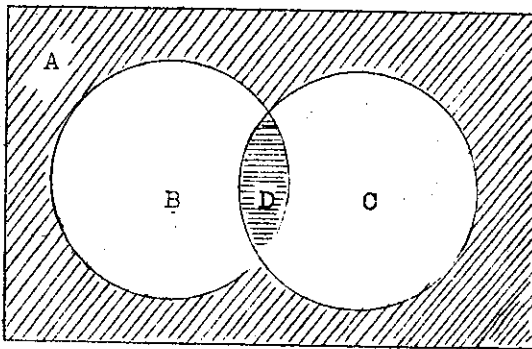
南北間의 政治文化的 異質性은 곧 南北間의 體制差異로 表現될 수 있다. 따라서 各 體制가 自己 體制를 維持하려는 根本的인 慾望을 拋棄하지 않는 한 南北間의 接觸은 政治文化에 影響을 미치는 程度가 強한 경우일 수록 實現되기 어렵다는 論理가 선다. 이것은 곧 相互의 價值, 믿음, 感情的 態度에 影響을 주지 않거나 最少限 相互의 影響을 甘受할 수 있는 程度에서 接觸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南北間의 接觸과 政治文化와의 關係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表 3-4 >

註 10) 國土統一院, 南北政治力量比較, 1972. p. 53.

<表 3 - 4 >

接觸과 政治文化



- A : 南北相互政治文化의 影響을 주지 않는 範圍 (接觸可能條件)
- B : 北韓政治文化에 影響을 주는 範圍
- C : 韓國政治文化에 影響을 주는 範圍
- D : 相互 影響을 주나 政治的 努力으로 諒解可能한 範圍 (接觸可能範圍)

위에서 "B" "C"을 除外한 "A" "D"의 경우 接觸可能條件으로 볼 수 있다. 다만 "D"의 경우는 相互의 影響의 範圍가 政治的 努力의 限界를 초월할 경우를 除外한 相互 甘受可能한 範圍임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勿論 接觸의 用易度는 特定接觸對象 - 方法 또는 分野를 莫論하고 - 이 "A"의 條件을 가질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며 "D"의 경우가 그 다음이다. 여기서 "B" "C"의 경우와 D의 경우중 雙方의 政治文化에 極端의 影響을 미치는 경우는 接觸可能條件이 될 수 없 는 領域을 말한다.



### 3. 接觸과 技術增進 (skill promotion or positive function)

#### 가. 接觸과 成功感

特定한 形態의 接觸을 通해서 共同의 意識을 形成하는 것은 南北間의 接觸이 指向하는 바 하나의 目的이 된다. 一般적으로 接觸을 通해 共同意識을 갖는다는 것은 接觸의 過程에서 좋은 經驗 (good experience) 을 쌓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爲해서 特定한 接觸形態 그 自体 또는 그것이 包含하는 屬性이 共同의 協助과 作難을 通해 成功感 (experience of success) 을 確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論理가 成立한다. 즉 特定한 接觸過程을 通해 南北間의 相互協助나 共同研究등이 成功感을 갖일 수 있는 接觸形態의 경우에 共同意識이 形成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11)

Bernard de Veto 는 Hermans 의 The Human Group 의 序文에서 接觸 (interaction) 과 共感 (sentiment) 에 關해서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 "Interaction" and "Sentiment" depend on each other: the oftener "A" and "B" do things together, the more they will tend to like each other; the more they like each other, the oftener they will tend to do things together.... ]<sup>12)</sup>

註 11) 여기서 成功感의 意味는 相互接過程에서 特定接觸形態가 갖는 統一指向的 機能을 包含한다.

註 12) George C. Hermans, The Human Group, N.Y. Harcourt, Brace and Company, 序文參照,

그러나 이같은 경우에도 協助나 共同勢力을 통한 兩者의 行動의 結果가 “만족스럽다”는 假定下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Hormans는 그의 上記 著書에서 두 親旧間의 友情(friendship)과 接觸(interaction)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두사람이 서로 좋아한다. 만약 우리가 그 理由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共同의 利益(common interest)이 있거나, 그들의 性格(personality)이 맞기 때문이라는 回答을 들을 것이다. . . . 中 略. . . 우리는 두사람이 만나는 回數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자주 만나고 그러므로서 共同의 利益을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은 親旧가 될 것이다. 反面에 그들이 親旧間이라면 그들은 共同으로 協助하여 일할 수 있는 (getting together) 機會를 자주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자주 만나지 않는다면 그들間의 友情은 漸次로 사라질 것이다. (中略) 우리는 두 親旧가 「캠핑」에 興味를 가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間의 感情的인 結束(imotional tie)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캠핑」을 通하여 두사람이 같이 얻을 수 있는 滿足感이 있을 경우이다. 만약 「캠핑」 過程에서 모든 일이 잘 되었거나 또는 어려운 난간을 아두탈 없이 두사람의 協力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면 그들의 友情은 더욱 強化될 것이다. 두사람의 友情과 그들이 共同으로 얻을 수 있었던 成功感은 相互

依存적이다」 13)

우리는 여기서 友情과 成功感과의 關係를 發見할 수 있다.

南北間의 接觸의 경우에도 相互協力을 通하여 成功感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接觸은 더욱 促進될 것이다.

나. 南北間의 接觸과 技術增進

南北間의 接觸을 爲한 基準으로서 技術增進(positive function or skill promotion)은 特定한 接觸形態 그自体가 갖는 屬性이 接觸의 技術을 增進시키느냐의 与否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두가지의 作用面에서 分해하여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特定한 接觸形態의 接觸過程을 通해서 얻은 知識이 다른 形態의 새로운 接觸을 誘發케 하는 波及作用이고 다른 하나는 同一分野內에서 接觸을 계속 擴大하고 維持하려는 意慾을 느끼게 하는 作用이다.

一般的으로 이러한 技術增進은 그것이 波及作用이든 維持·擴大作用이든 面에 根本적으로 接觸의 成功感에서 出發한다. 다시 말하면 技術增進의 作用을 생각할때 特定한 接觸形態의 경우 그것이 總體한 機能面에서 相互體制面의 利害關係를 充足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接觸이 中斷된다. 따라서 相互의 利益이 介在하는 경우 그 利益自体가 接觸을 維持하고 擴大시키며 다른 分野나 方法으로 波及해 나가는 利益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南北間의 技術增

---

註 13) 上掲書, P.7

進은 接觸을 통한 相互間的 滿足感 내지는 成功感과 一次的으로 관련시킬 수 가 있으며 特定接觸形態의 接觸에서 成功感이나 滿足 感を 確保할 수 있다고 予測될 경우 그것은 技術增進의 여지가 있다고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接觸의 技術增進의 問題는 國家機構의 統솔을 機能的인 分野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機能主義論者들로부터 좋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機能主義의 原理論的 要素는 國家間的 機能的 分野의 共同協力は 伝播의 機能(Spill-Over capacity)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機能主義가 最初로 提議되었을 당시의 D. Mitrany 教授는 모든 機能的 分野의 共同協力は 伝波機能 또는 波及 効果를 갖고 있다는 論理的 假說에서 出發했다. 그러나 소위 新 機能主義 學派라 불리는 E. Haas, Joseph S. Nye 등의 主張에 依하면 機能主義 本래의 波及効果는 Mitrany 教授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絶對的인 것이 아니라고 본다. 즉 特定한 共同協力の 경우 그 結果가 반드시 發露的인 方向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反對方向으로 나타나므로서 接觸의 波及이나 維持·擴大作用을 오히려 抵禦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4)

이것을 本 研究에서 提議한 技術增進의 概念에서 볼 때 여하한 形態의 接觸에 있어서도 接觸過程에서 수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波及作用 내지 維持·擴大作用을 予測할 必要가 있음을 말해

---

註 14) 우재승, 機能主義理論과 南北再結合, 國土院, 1972, pp. 5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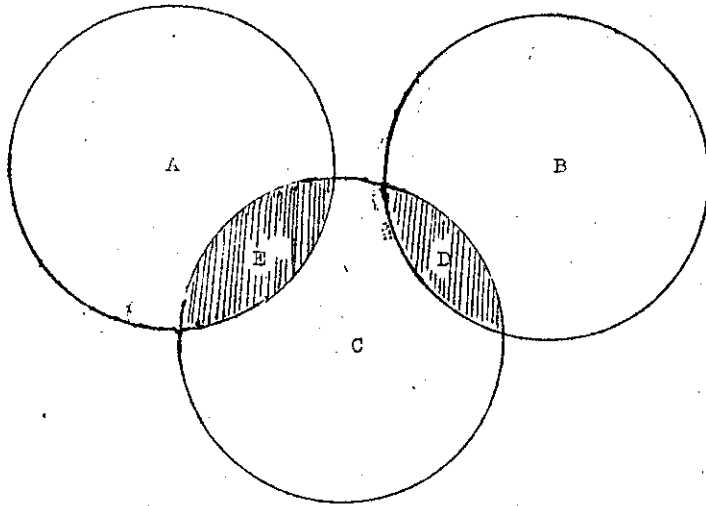
준다.

一般的으로 이러한 予測은 特定한 接觸形態에 對面의 接觸을 通해서 얻을 수 있으리라는 結果에 對한 期待感의 程度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 勿論 이러한 結果는 特定한 接觸形態의 接觸에서 처음부터 얻으리라 目的하는 「意圖된 結果」(intended result)와 처음부터 期待하지 못했는 「意外的 結果」(unintended result)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意外的 結果」에 對해서는 接觸이 일단 이루어지고 난 以後에 考慮될 性質의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予期치 못한 結果는 暫定的인 것이고 또한 二次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南北接觸 基準으로서 技術增進은 特定한 接觸形態를 現在의 與對으로 分析하여서 成功의 期待値를 產出하고 予測해보는 次元에서만 意圖를 갖는다. 現時點에서 볼때 다만 여기서 分明히 해두어야 할 것은 特定接觸形態가 갖는 技術增進의 期待値의 程度를 予測하는데 있어 前記한 다른 두가지의 接觸基準 즉 同質性, 政治文化의 範圍를 排除하는 점이다. 따라서 技術增進의 範圍는 特定 接觸形態 自体의 協能的인 領域에만 局限해서 把握해야 할 性質의 것이다. 이러한 技術增進을 把握하기 위한 期待感의 程度를 圖示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表 3 - 5)

< 圖 3 - 5 >

接觸과 技術增進



A ; 予設치 못한 결과

B ; 意圖된 결과

( 予期한 결과 )

C ; 成功의 期待感

D ; 南北接觸可能條件

上記 図示에서 “B” “C”가 겹치는 부분 즉  $B \cap C$ 의 領域인 “D”가 環形的으로 北接觸을 可能하게 하는 條件이 되고 “E”의 領域은 앞으로 설명할 波及效果의 戰略要素가 된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可能한 接觸形態를 그 分野나 方法에서 보다 細部的으로 分類하므로써 “D”의 領域까지 局限시켜서 把握할 수 있는 接觸形態를 想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關해서는 2節의「基準面의 相互關係」를 說明하면서 詳述할 것이다.

## 第二節 相互關係 ; 同質性, 政治文化, 技術增進

앞에서 南北間의 接觸을 爲한 세가지 判斷基準 - 同質性, 政治文化, 技術增進에 關하여 說明하였다. 여기서는 이 세가지 基準과 接觸과의 相互關係를 通하여 몇가지의 判斷法則을 樹立하고자 한다.

그러기 爲해서 接觸을 試圖의 面과 維持, 擴大의 面으로 分類하고 接觸可能形態의 判斷을 爲한 基準間의 相互關係를 說明하고자 한다.

### 1. 接觸의 試圖와 維持擴大

南北間의 接觸이 可能하다 함은 接觸의 試圖가 可能해야 하고 또 일단 試圖된 接觸이 維持 擴大가 可能해야 한다. 15)

이것을 集合의 記호로 表示하면 接觸의 試圖가 可能한 形態의 範圍를 A, 接觸의 維持, 擴大가 可能한 形態의 範圍를 B 라고 할 境邊 接觸可能形態의 範圍(X)는  $X = A \cap B$  ( $A \text{ "cap" } B$ ) 가 된다.

이것을 다음의 圖式으로 表示될 수 도 있다. (表 3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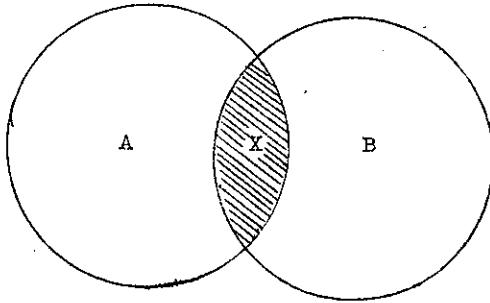
---

註 15) 本稿 第一章「概念의 定義」參照



<表 3 - 6 >

接觸의 試圖와 維持擴大



X ; 接觸可能形像의 範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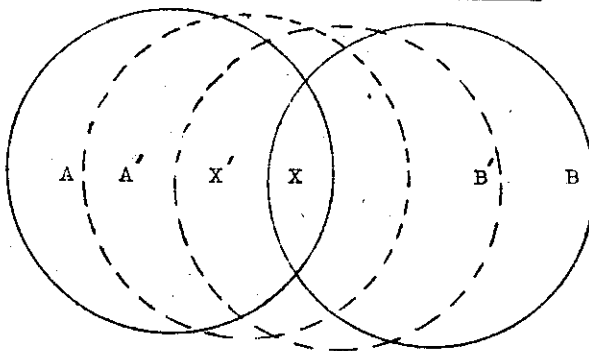
A ; 接觸의 試圖 可能

B ; 接觸의 維持, 擴大可能

上記 圖示는 政治的 努力을 進하여 더욱더 接近할 수 있다. 政治的 努力은 多분히 雙方 體制間의 어느 程度 讓步를 前提할 수 있는 境畵를 말 한다. 즉 雙方의 政治的 努力에 依해 南北間의 接觸이 促進된다면 上記의 圖示는 다음과 같이 變化시킨다고 볼 수 있다. (表 3 - 7)

<表 3 - 7 >

政治的 努力과 接觸可能範圍



政治的努力이 없는 境遇 즉 中立的이라 생각하는 境遇에 接觸可能範圍는  $X = A \cap B$ 의 部分이 있으나 政治的努力이 接觸을 促進시킬 境遇 A는 A'로 B는 B'로 各各 移動되어 接觸可能範圍  $X' = A' \cap B'$ 로 될 것이다.

南北間의 諸 接觸을 媒介機構 또는 團體 즉 UNESCO나, 第3국 機關을 通하여 보다 突現性있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以外에 商品交流의 境遇 南北間의 相互 補完的인 商品間의 交易를 爲한 經濟手段을 마련 하므로써 보다 接觸을 促進할 수 있다. 이러한 諸般努力은 위에서 말한 政治的努力으로 看做되는 一例이다.

## 2. 波及作用

가. 接觸可能形態와 接觸槪念形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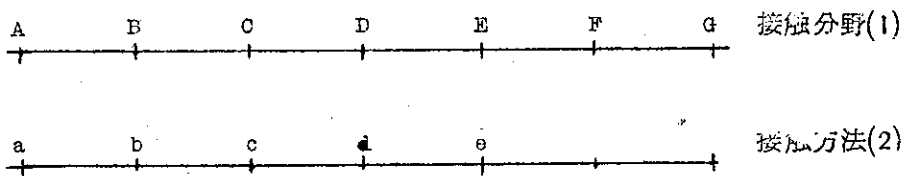
南北間의 接觸의 諸形態는 接觸可能形態와 接觸槪念形態로 나누어 진다.

여기서 接觸의 形態라 함은 接觸의 分野와 方法의 結合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본다. 즉 一例를 들면 「아스카 고는 共同研究」의 境遇 이것은 「文化」라는 屬性和 「共同研究」라는 屬性으로 分離될 수 있다. 이때 「文化」를 接觸分野, 「共同研究」를 接觸方法으로 보았을때 이 두가지 屬性的 結合인 「아스카文化共同研究」(分野+方法)를 接觸의 形態로 把握한다.

接觸의 形態를 接觸分野와 方法의 結合으로 볼때 이것은 理論上 다시 「分野의 接觸可能性」과 「方法의 接觸可能性」으로 区分할

수 있다. 이境地 可能한分野와 可能한 方法의 結合形態를 「接觸可能形態」로서 把握한다. 따라서 接觸形態中 接觸可能形態를 除外한 接觸形態를 「接觸聯契形態」라 한다.

前記한 바와 같이 接觸分野와 方法을 併行하는 두 線上에 表示하면 다음과 같은 圖示가 可能하다.



上記의 圖示에서 接觸分野를 7個로, 接觸方法을 5個로 区分할 수 있을 境地를 假定하자. 또한 여기서 cd의 結合을 「아스카文化 共同研究」로 假定하고 이 形態가 接觸이 可能한 形態로 判斷되었다고 하고, 以外의 要素間의 結合形態는 接觸이 不可能하다고 할 경우 다음으로 說明이 可能할 것이다.

接觸可能形態:  $C \times d$ , (아스카고분 共同研究)

接觸聯契形態:  $\left\{ \begin{array}{l} A \times a, A \times b, A \times C, A \times d, A \times e \\ B \times a, B \times b, B \times C, B \times d, B \times e \\ C \times a, C \times b, C \times G, C \times e \\ D \times a, D \times b, D \times C, D \times d, D \times e \\ E \times a, E \times b, E \times C, E \times d, E \times e \\ F \times a, F \times b, F \times C, F \times d, F \times e \end{array}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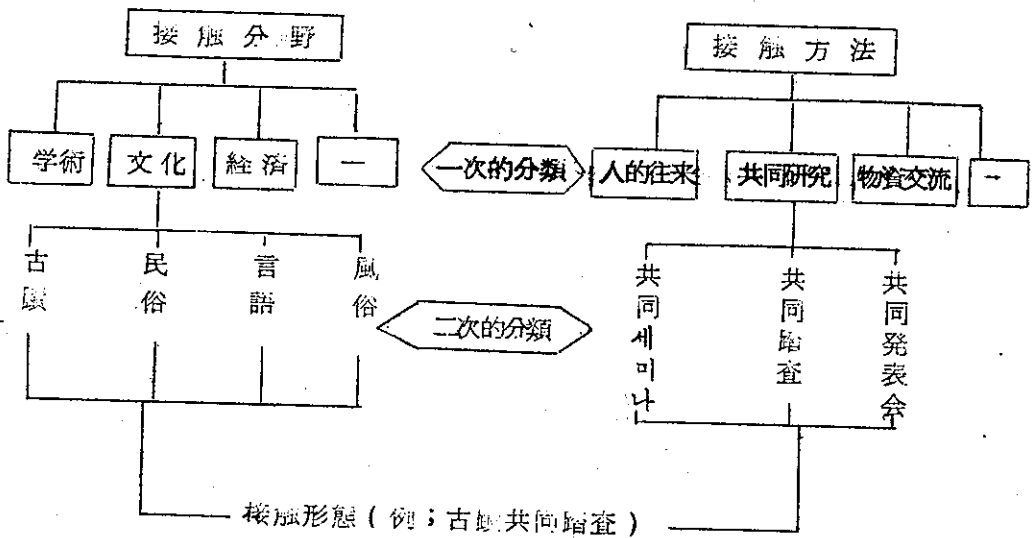
接觸分野와 接觸方法은 理論上 各各 同一次元에서 細分할 수

있다. 여기서 細分하기 以前의 境遇를 「一次的分類」라 하고 細分 以後의 分類를 「二次的分類」라고 한다. 즉 接觸分野의 境遇 學術, 經濟, 文化, 美術 等으로 分類된 境遇와 接觸方法의 境遇 物資의 交流, 人的往來, 共同研究 等으로 分類된 境遇를 一次的分類라 하고, 이것이 다시 細分된 境遇를 二次的分類라 한다.

다시 말하면 一次的分類에서 나타난 文化的 境遇(分野)와 共同研究의 境遇(方法)를 各各 古蹟, 民俗文化, 言語, 風俗으로, 그리고 共同세미나, 共同調査, 共同踏査의 式으로 分類된 境遇를 二次的分類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表 3-8)

<表 3-8> 接觸形態의 構成



南北間의 接觸의 形態로서 事實上 一次的分類 單位間의 結合은 实效性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研究過程에서 取扱하는 接觸의 形態는 二次的分類單位間의 結合으로 構成되는 形態를 指稱하게 된다. 다만 一次的分類는 各谷의 接觸可能形態의 分布의 頻度를 測定하는 基準으로서 또는 南北間의 接觸을 爲한 假說의 一般化 (generalization) 를 爲한 「틀」로서 意味를 가진다.

#### 나. 波及作用

南北間의 接觸의 波及을 特定한 接觸可能形態를 通해 이것이 構成하는 各各의 接觸分野, 接觸方法의 細分된 屬性을 交實시키므로서 波及된다. 이때 波及作用을 하는 것은 接觸可能形態의 接觸過程을 通해 얻은 成功感 또는 技術增進이나 外部에서 作用하는 政治的努力 즉 政治的으로 接觸을 維持 擴大하려는 努力이다.

特定한 接觸可能形態의 接觸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얻은 成功感 즉 技術增進을 通하여 이것이 聯繫分野의 同質性(identity)의 屬性을 變化시킨다.

즉 共通의 經驗基盤이 確立되고 또 特定聯繫分野에서의 새로운 接觸의 必要性을 發見하게 된다. 따라서 同質性的 다른 屬性인 價値構造에서도 漸次 同一意識을 느끼게 되며 必要한 部分의 接觸을 促進하게 된다. 이것이 第一段階의 波及過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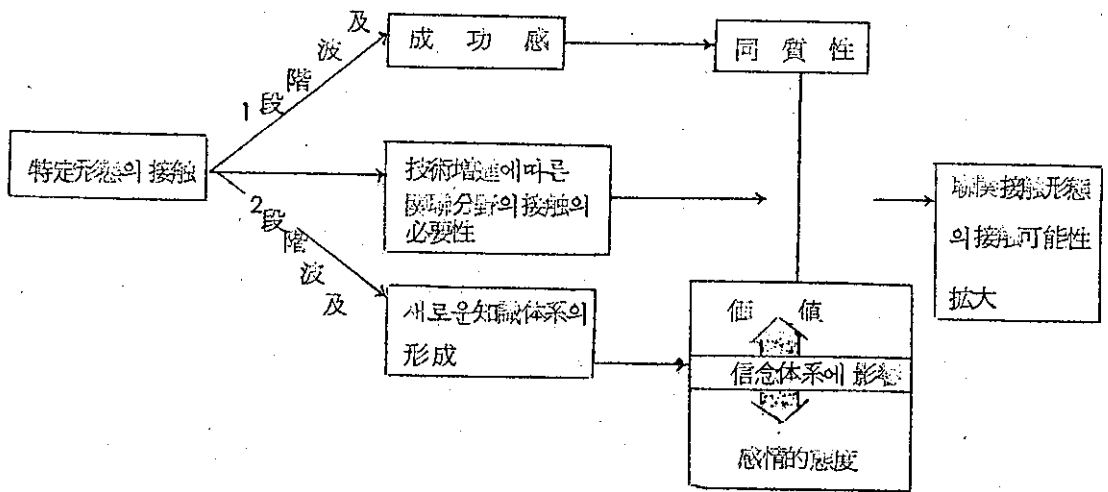
特定한 接觸可能形態의 接觸過程에서 얻은 成功感 以外 이러한 過程을 通하여 새로운 知識體系를 習得하게 된다. 즉

技能主義論者는 이것을 Learning Process 라고 하여 經驗

的知識을 意味하고 이것이 波及을 일으킨다고 본다.<sup>16)</sup> 이러한 經驗에서 오는 知識基盤이 相互間의 믿음 즉 信念體系에 影響을 준다. 이것이 第二段階의 波及過程이고 信念體系의 조그만한 變化는 곧 政治文化 全般에 影響을 줌으로써 聯 他分野의 接觸可能程度를 擴大시키는 役割을 하게 된다.

이것을 簡單히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表 3 - 9)

<表 3 - 9> 接觸의 波及作用構造



註 16) 우재승, 統合理論의 比較研究와 韓國統一의 接近方法, 国土統一院, 1972.6, pp.9 ~ 12,

一 예를 상정하면 非武装地帶의 動植物分布에 関한 南北學者間의 共同調査研究를 實施했다고 하자. 이러한 것은 여기서 말한 接觸可能分野라 指稱할 境遇 이分野의 共同研究에서 예기치 못한 結果 (unintended result) — 새로운 種類이 發見등—가 나타났거나 또는 특種한 動植物의 行態에 関하여 새로운 結論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勿論 상정한 境遇다) 이때 共同調査研究班은 이 새로운 事實을 南北學界에 發表하고 또 外國에도 이 研究業績이 報告되어 各광을 받았다면 이것은 南北間의 共同研究를 對해 얻은 結果에 代하여 相互 滿足할 것이다. 이것을 一種의 成功感으로 指稱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經験이 動植物 共同研究에서 한편으로는 浸漬강 下流의 魚族에 對한 研究로 또는 이地域의 觀光開發에 関한 研究로 그 可能 程度를 波及케 될 것이다. 또다른 한편으로 共同調査研究의 經験을 通해 南北間의 새로운 共同體體로서 하나의 固定化된 南北 動植物學者間의 公式機構로도 發展할 수 있고 또 이에 關聯된 研究結果를 서로 交換하거나, 南北 動植物 學者間의 相互 親善訪問 等으로 擴大될 수 있다.


前者의 境遇 즉 研究의 成功感이 그 聯繫分野로 擴大되는 境遇이고 後者의 境遇는 그 聯繫方法으로 擴散되는 境遇이다.

이것을 理論적으로 說明할때 聯繫分野와 聯繫方法間의 새로운 조합 (combination) 이 생겨 처음의 非武装地帶動植物共同調査研究가 聯繫接觸形態로 擴大될 수 있는 波及의 可能性을 말해 주는 것이

다. (表 3-10)

<表 3-10>

接觸波及作用 (接觸可能形態와 接觸關係形態)

	接觸可能形態		接觸關係形態
形態	○ 非武装地帶의 動植物 共同調査研究		○ 임진강下流 漁業分布 共同研究 ○ 非武装地帶 觀光開發을 위한 共同踏査
分野	○ 非武装地帶 動植物研究		○ 임진강下流 漁業分布生態 ○ 非武装地帶 觀光開發
方法	○ 共同研究		○ 共同研究報告會 ○ 南北動植物學者세미나 ○ 南北相互親善訪問 ○ 研究書籍交流

위의 例에서 본대로 이러한 波及過程은 우선순위의 問題를 考慮하지 않고 있다. 즉 時間性的 問題를 波及效果의 側面에서 說明을 한다면 特定한 部分의 接觸이 成功하면 이것이 擴大되기 爲해서는 固 他部分 즉 보다 密接한 關係分野를 많이 가질수록 波及效果는 커진다. 그러나 具體적으로 波及效果가 크다, 적다의 判斷



의 問題는 여기서 排除키로 한다.

다만 이러한 波及은 特定分野의 接觸이 技術增進 즉 成功感을 確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同質性, 政治文化에 影響을 주게 되는 相互作用關係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러한 關係는 곧 어디서 接觸이 始作되어야 하느냐 하는, 즉 接觸可能形態의 發見과 그 優先順位를 決定하는 問題가 남는다.

### 3. 接觸의 制約變數와 戰略變數

앞에서 南北接觸可能分野發見을 爲한 세가지의 基準을 言及하였다. 우선 이것이 判斷基準을 接觸의 試圖의 面과 接觸의 維持, 擴大의 面을 分擔하여 把握하고 接觸可能形態의 判斷을 爲한 基準間의 相互關係를 說明하고자 한다.

同質性(identity)는 두가지의 屬性—즉 特定分野에 對한 南北間의 價值構造의 同質성과 그 分野의 經驗的 同質성의 —을 兩側面에서 說明하였다. 그리고 政治文化는 價值(value), 信念體系(belief system), 感情的 態度(emotional attitudes)로 그 屬性을 把握하고, 技術增進은 成功感(experience of success)으로 把握하였다.<sup>17)</sup> (表 3-11)

---

註 17) 本稿 第三章 第一節 「接觸의 基準」 參照

<表 3 - 11 >

接觸과 判斷基準의 屬性

判 斷 基 準	屬 性
同 質 性 (ID)	價値構造의 同質性, 經驗的 同質性
政治文化 (P.C)	政治的 價値體系, 信念體系, 感情的態度
技術增進 (S.P)	成 功 感
接 觸	試 函, 維持・擴大

南北間의 여하한 接觸形態도 各各의 判斷基準의 屬性和

接觸의 試函, 維持擴大와의 關係로 說明 할 수 있다.

우선南北間에 全혀 이질화된 價値構造를 갖는 形態의 接觸은 생각키  
힘들다. 27年동안의 圓形化 되어버린 南北間의 變化는 生活과 思  
考의 面에서는 相當한 差異를 가져왔다. 이것은 南北間의 接觸을  
單純히 歷史나 血統만 믿고 同一性을 意識한 接觸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 言語의 差異는 勿論이고 文化, 藝術等의  
分野에서도 그것 自体가 같은 價値構造의 懸隔한 差異를 包含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것은 특히 解放後世代의 境遇一극 南北 分단  
以後에 世代一더욱 懸隔하다. 一例로 “피바다”라는 歌劇이

“살짜기 읍서에”와 同一하게 “歌劇”이라는 價值構造를 느끼지 못한다는 點이다. 이것은 多분히 雙方体制의 政治理念과도 關聯되어 있고, 政治宣傳과도 關聯될 수 있다. 左右間 “歌劇”의 價值構造가 다른 限 南北間의 “歌劇”에 對한 相互交流나 研究가 이루어 질수 없다는 것은 明若鏡火한 일이다. 18)

反面에 南北間의 經驗的 同質性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是亦 歷史的 經驗을 말하는 것으로서 歷史나 血統등 民族으로써 갖는 歷史的 單一意識과 같은 것이다. 아스카의 고분에 對한 南北學者의 共同研究가 이미 試圖된 일이 있다. 19)

이것은 多분히 南北間의 “아스카 고분”에 對하여 우리 民族의 歷史라는 面에서 同一意識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南北間의 經驗的統一性 (empirical identity)가 있는 形態일수록 그 接觸의 試圖가 可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同質性은 接觸의 試圖와 關聯하여 두가지의 關聯性을 發見할 수 있다.

註18) 이와 비슷한 事例로서 南北赤十字代表들의 顯忠詞과 高景台 觀光을 比較하여 南北間의 差異를 說明하는 見解가 있다. 金光雄, “南北對話의 理論과 戰略”, '72 韓國統一會議發表論文 (1972.10.20 ~ 22), 嶺南大學交 統一問題研究所, pp. 1 ~ 2.

註19) 조선일보 1972年10月10日字4面 參照

첫째, 南北간의 價值構造는 系統의 試圖와 陔驗이 있다.

둘째, 南北간의 歷史的 또는 經濟的 同質성은 接觸의 試圖를 容易하게 한다.

다음은 政治文化面 即 體制守設의 側面에 限하여 接觸의 試圖와 陔驗性을 考察 하겠다.

政治文化는 그 綜合概念으로서 政治的 價值體系, 政治的 信念體系 즉 믿음(Beliefs) 그리고 感情的 態度로 說明하였다. 20)

적어도 南北간의 接觸을 想定할때 어느 形態이든 間に 相互의 體制維持의 立場을 떠나서 說明할 수 없다.

이것은 同一分斷된 兩體制가 결코 어느 一方 體制에 依한 我邦 體制의 變質이나 體制維持에 影響을 미치는 경우에는 어떠한 接觸도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을 意味한다. 지난 四半世紀以上 南北은 各々 相異한 理念體制下에서 相異한 政治와 手段으로 各己의 體制를 確固히 해왔다는 것은 南北간의 接觸에 있어 重要的 前提가 된 것이다. 이것은 또한 廳半島內의 唯一合法性을 一方體制만 갖고 있다는 問題와는 別個의 것이다. 東, 西獨의 경우 「部分秩序理論」<sup>21)</sup>이라는 새로운 概念을 確立하였다. 즉 東獨과의 接觸過程에서 相對方의 國體를 認定하느냐 與否를 論難하기 以前에 東, 西獨의 諸國接觸을 同一民族의 統合을 指向하는 部分秩序로서 理解하고 있다.

註 1) 本稱 第三章 第一節, 「接觸의 基準」 參照

註 2) 中央情報部, 東, 西獨接觸陔係資料集(接觸資料上),

1971, P. 18.

이러한 論理는 南北間의 接觸過程에서도 導入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다 .

여하튼 南北間의 接觸은 一方體制가 影響을 주어 다른 體制의 內部變質을 可能케 하는 要因이 있을 경우에는 接觸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 그러나 勿論 이런 前提는 接觸의 試圖의 面을 中心으로 考察된 것이다 . 다만 前記한 바와 같이 政治的 努力이 強力하게 接觸을 促進을 追求한다면 다소간의 相互政治文化에 影響을 미치는 形態 즉 相互間 조그만 變質의 要素를 包含하는 形態에도 接觸의 可能性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sup>22)</sup>

接觸의 試圖面에서 볼때 적어도 南北間의 雙方이 갖는 政治文化와의 關係는 다음으로 要約될 수 있다 .

첫째 ; 相互의 政治文化의 影響과는 無關係한 分野일수록 接觸의 可能性이 높다 .

둘째 ; 政治的 努力이 경주되면 相互政治文化에 약간의 影響을 주는 경우라도 接觸의 可能性이 있다 .

끝으로 기술증진과 接觸의 維持 . 擴大와의 關係를 考察하겠다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하한 接觸의 경우도 相互의 接觸過程을 通해 接觸分野의 發展에 기여하거나 또는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지 못할때 이 接觸은 그 試圖에서만 그치고 말 수도 있다 .

이러한 接觸의 도움 . 發展이 되는 結果는 곧 接觸을 通하여

---

註 22) 本稿 第三章第二節「相互關係」中 “接觸의 試圖와 維持 . 擴大”參照

얻은 成功感을 말하거나 또는 接觸過程에서 얻은 經驗的 知識을 말하며 이것이 波及効果를 일으킨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다.

첫째 ; 南北間의 接觸은 技術增進이 있는 것일 경우 維持・擴大가 可能하다.

以上の 세가지 判斷基準을 각각 接觸의 試圖와 維持・擴大面에서 考察하였다.

여기서 同質化와 政治文化는 接觸의 試圖를 爲한 制約變數인데 反하여 技術增進은 이들 變數에 波及作用을 일으키는 戰略變數로 把握할 수 있다. 따라서 南北間의 接觸을 이 세가지 變數와의 關係에서 다음과 같이 把握할 수 있다.

南北間의 接觸可能形態(接觸의 試圖+維持・擴大)는 ;

$$X = f(ID, PC, SP, \dots, \text{一定}) + \text{政治的 努力} + \text{국제적여건}$$

여기서 X는 接觸의 試圖와 維持・擴大를 同時에 包括하는 概念이며, 政治的 努力이란 各 要素를 보다 擴張시킬 수 있는 固定變數(즉 本論文의 展開上 固定的인 것으로 본다)로 본다. 그리고 국제적여건은 本論文에서 前提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정變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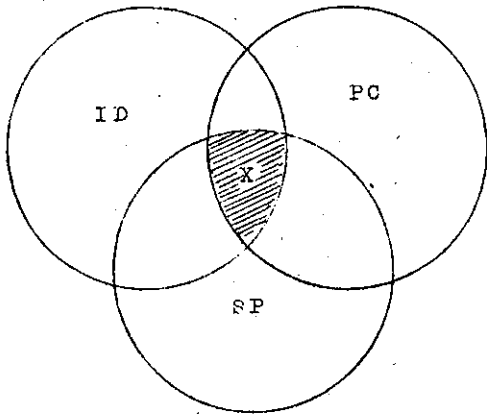
그리고 ID, PC, SP를 除外한 其他의 接觸과 關聯된 要因은 本 研究에서 一定하다고 본다.

따라서 위의 式에서 政治的 努力과 국제적여건을 排除하면 ;

$$X = f(ID, PC, SP) \text{로 表記된다.}$$

이것을 圖形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表 3 - 12)

<表 3-12> 接觸의 條件



左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非北極의 接觸은 세가지의 基準을 滿足시키는 範圍 "X"에서 可能하다. 즉  $ID \cap PC \cap SP$ 의 條件을 갖추는 接觸形態가 接觸可能形態가 된다.

### 第三節 接觸類型의 發見

以上에서 南北間의 接觸可能形態는 세가지 判斷基準—同質性 政治文化·技術增進의 共有範圍 즉 PC∩ID∩SP의 範圍를 充足하는 것이어야 함을 說明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基準間의 相互關係를 實際 接觸可能形態의 判斷을 容易하도록 하기 위한 單純化의 法則을 發見하여 이것을 類型化하므로써 假說導出의 基準으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接觸判斷基準의 共有範圍를 實際 測定 또는 判斷하기 위하여 各 判斷基準의 尺度를 決定하는 것이 優先的 課題일 것이다.

#### 1. 尺度 (Scaling)의 決定

尺度 (scale)라 함은 우리가 測定하고자 하는 事實의 屬性 (attributes)을 그 屬性의 程度의 差異에 따라 順序대로 배열한 것이다.

그리고 測定한다는 것은 어떠한 事實의 한 屬性이 이와 같이 배열한 屬性中에 어떠한 것에 해당한다고 指摘하는 것이다. 이것은 一聯의 質的事實들을 一聯의 量으로 바꾸는 方法이기도 하다.<sup>23)</sup>

또한 尺度를 構成하려면 한 屬性의 程度를 다른 事實의 그러한 屬性의 程度와 比較하여 그 程度의 差異를 表示할 수 있도록 하면

註 23) 金海東, 調查方法論講義, 서울, 三中堂, 1971. P.183.



된다. 이러한 意味에서 尺度를 그러한 差異 또는 程度를 表示하는 道具라고 말할 수 있다.

社会現象을 測定하는 尺度는 大體로 一聯의 質的인 事實을 量的인 變數(quantitative variables)로 配合하여 놓은 것이다. 故로 大部分의 尺度는 一聯의 質的인 事實을 表現하는 項目으로 되어있다. 24)

社会現象을 測定하는 尺度는 그 基準에 따라 여러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우선 그 測定하는 對象에 따라서 ①社会的 行爲의 性品(Personality)을 測定하는 尺度와 ②文化的, 社会的 狀況을 測定하기 爲한 것으로 分類할 수 있다.

南北間의 接觸은 위의 諸形態를 包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本 研究의 目的이 뜻하는 대로 南北間의 接觸은 特定한 接觸可能 形態의 発見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므로서 크게 이에 肯定的인 面과 否定的인 面으로 区分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肯定的이라 함은 前記한 세가지의 判斷基準間의 共有範圍를 充足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基準의 어느 하나 또는 그以上을 欠한 경우는 否定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註 24) 上掲書, P. 191.

南北間の 接觸과 關聯하여 세 가지의 判斷基準을 다음으로 測定の 範圍를 区分하였다. (表 3 - 13 )

<表 3 - 13 > 判斷基準의 尺度 (1)

尺 度 基 準	肯定的 (+)	中立的 (0)	否定的 (-)
同 質 性			
政 治 文 化			
技 術 增 進			

上記 圖示에서와 같이 各 基準을 肯定的 (positive), 中立的 (neutral), 否定的 (negative) 로 나누었다. 즉 接觸의 技術增進, 同質性, 政治文化를 各各 그 屬性을 遵한 判斷過程으로 보고 이들이 南北間の 接觸에 對한 促進 또는 沮害하는 程度를 세 가지로 区分한 것이다. 이것을 屬性別로 各 cell에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表 3 - 14 )

<表 3-14 >

判斷基準과 尺度 (2)

	+	0	-
同質性 (ID)	歷史的共感 및 共同價值 領域	歷史的共感 또는 共同價值 領域	異質的
政治文化 (PC)	影響無	相互影響 (政治的努力으로相 互諒解可能)	一方的影響또는 相 互影響의 程度가 큼
技術增進 (SP)	肯定的機能 (統一指向的 機能 또는 體 制發展的機能)	中立的	逆機能 (마찰, 대립등)

여기서 이러한 尺度의 意味가 있는 것은 적어도 세가지 基準中의 하나 또는 그 以上이 否定으로 나타나는 接觸形態는 적어도 現段階에서는 接觸이 어렵거나 또는 接觸을 適하여 오히려 마찰, 對立을 가져오는 경우라는 點이다. 따라서 接觸이 可能하기 위해서는 判斷基準이 中立的 또는 肯定的인 判斷인 接觸形態이어야 한다.

또한 有意할 것은 各 判斷基準간의 測定單位의 값을 同一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세가지 要素가 ++0로 나오는 경우에 이 要素의 다른 조합 즉 +0+ 또는 0++의 경우가 同一하다는 가정에 立脚하고 있다. 따라서 총 세분된 測定單位 자체가 갖는 程度의 問題는 本研究에서 배제한다.

## 2. 接觸의 選定

앞에서 檢討한 각 尺度에 따라서 南北間의 接觸可能形態는 各 基準에 肯定的이거나 中立的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測定單位를 中心으로 볼때 接觸可能形態는 적어도 세가지 基準이 갖는 測定單位의 결합(즉  $ID \cap PC \cap SP$ )이 中立的이거나 또는 그 以上이어야 한다. 여기서 便利上 부정적인 경우를 包含하여 特定の 接觸形態가 구성할 수 있는 組合(Combination)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3 - 15)

<表 3-15>

接觸條件의 단위간 구성조합

(3×3×3)

	ID	PC	SP		ID	PC	SP		ID	PC	SP
1	+	+	+	10	0	+	+	19	-	+	+
2	+	+	0	11	0	+	0	20	-	+	0
3	+	+	-	12	0	+	-	21	-	+	-
4	+	0	+	13	0	0	+	22	-	0	+
5	+	0	0	14	0	0	0	23	-	0	0
6	+	0	-	15	0	0	-	24	-	0	-
7	+	-	+	16	0	-	+	25	-	-	+
8	+	-	0	17	0	-	0	26	-	-	0
9	+	-	-	18	0	-	-	27	-	-	-

위에서 否定的인 경우 즉 “-”를 하나 또는 그 以노 가진 경우를 除外하면 1, 2, 4, 5, 10, 11, 13, 14, 의 8가지의 組合이 北向의 接觸可能條件이 된다. 여기서 8개의 경우를 다시 分類하면 세단위가 모두 “+”인 경우와, 두단위가 “+”이고 하나가 “0”인 경우, 두단위가 “0”이고 나머지 하나가 “+”인 경우, 그리고 세단위가 모두 “0”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①
- ++0, 0++, +0+.... (2), ④, ⑩,
- +00 0+0 00+....⑤, ⑪, ⑬,
- 000 ..... ⑭

위에서 4가지 유형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세基準이 모두 "+"인 ①의 조합을  $T_1$ , ②, ④, ⑩의 조합을  $T_2$ , ⑤, ⑪, ⑬의 조합을  $T_3$ , ⑭의 조합을  $T_4$  로 한다. (表3-16)

<表3-16> 4가지 接觸類型

$T_2$ (++0)	$T_1$ (+++)
$T_3$ (+00)	$T_4$ (000)

위에서 選定된 類型別의 明確한 關係를 說明하는데는 理論上의 限界가 있다.

그러나 大体로  $T_1 \rightarrow T_2 \rightarrow T_3 \rightarrow T_4$  가므로서 接觸의 可能程度가 弱해간다고 할 수

있다. 즉  $T_1$ 의 경우는 比較的 完全한 接觸形態이고, 反面에  $T_4$ 의 경우에는 政治的 努力이 보다 必要한 類型이 된다.

여기에서 選定된 4가지의 類型別로 南北間의 接觸可能形態를 判斷하고 그 優先順位를 決定하는 問題는 다음 章에서 다룰 것이다.

## 才四章 類型의 適用 및 假說의 導出

### 才一節 接觸分野와 接觸方法

三章에서 接觸可能形態라 함은 接觸의 試圖와 維持, 擴大가 交叉하는 部分임을 說明하였다. 그리고 接觸可能形態는 接觸의 分野와 接觸의 方法과의 結合된 一形態임에 關하여도 說明하였다<sup>1)</sup>

여기에서는 南北間에서 이러한 接觸可能形態를 構成하는 外廓範圍인 接觸分野와 接觸方法 各各의 範圍選定에 關하여 다루기로 한다.

여기서 分類하고자 하는 分野와 方法은 지극히 一次的인 性格에서 考慮된다. (그러나 2節에서는 보다 細分化된 各各의 一극 接觸分野와 方法 - 2次的 屬性間的 結合으로 接觸可能形態가 選定될 것이다.) 이것은 다만 全般的인 諸領域에서 接觸可能한 形態間的 關係法則을 一次的인 領域에서 考察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이것은 곧 接觸의 全範圍를 포괄하므로서 理論을 單純化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同一分斷民族國家로서 우리의 비슷한 与件-적어도 接觸을 通한 統一을 指向하는 - 을 가지고 있는 國家는 獨逸의 경우이다.

Brzezinski 는 그의 分斷國의 4段階統一 過程의 說明에서 獨逸의 경우는 接觸, 交流의 段階로 접어들고 있는 반면에

韓國의 경우는 制限된 協助가 推進될 段階에 臨하

---

註1) 本稿 才三章, 才 節 「相互關係」參照

고 있다고指摘하였다. 2) 따라서 弱極的인 統一의 成就時期를 不問에 부치고 現段階로서는 獨逸의 경우가 韓國의 경우보다 1段 階 進展될 形態로 보고 있는 것이 一般的이다.

이것은 東·西獨間의 接觸過程의 先例에서 어떠한 分野의 어떠한 方法이 試圖되어져 왔는가를 獨逸의 經驗을 通하여 살펴보는 것이 보다 意味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Brzezinski 가指摘했다 싶히 韓半島의 경우와 東·西獨의 경우는 그 統合의 一 또는 統一 - 여건과 狀況의 差異가 있으므로 南北間의 特殊한 狀況이나 여건이 必히 考慮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一次的으로 東·西獨의 接觸先例에서 얻을 수 있는 經驗知識과 二次的으로 南北間의 狀況을 考慮하여 接觸分野와 接觸方法을 分類코져 한다. 다만 特記할 것은 可能한 限 各分野의 屬性을 中心으로 分類코져 努力하였음을 밝힌다.

이러한 分類作業은 本論文에서 研究하고자 하는 南北間의 接觸可能形態의 發見과 接觸의 優先順位를 選定하는 基本的인 「틀」을 이루게 되며 同時에 前記한 南北接觸可能形態의 發見을 爲한 4가지의 類型의 適用을 爲한 「틀」이 된다.

---

註2) Asiatic Research Center, Repor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oblems of Korean Unification, Korea University  
PP. 1228-29.



## 1. 接觸分野의 分類

歴史的으로 東, 西獨간은 「아레나워」時代 (1949~1963) 부터 部分的인 接觸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 韓半島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다가 1961年 백림봉쇄事件 以後에 一時 중단되었으며 「에르하르트」時代 (1963~66) 에는 비교적 不厭한 狀態를 免치 못하였다가 1966年度에 다시 活氣를 띄기 시작하여 「키싱거·브란트」聯政時代 (1966~69) 및 「브란트」時代 (1969~ ) 에 本格化된 接觸을 통한 統獨段階로 접어들고 있다<sup>3)</sup>

東, 西獨間의 接近개념의 出發點은 ① 事實上의 「두개의 獨逸國家」가 存在하고 ② 統合(統一)은 가까운 將來에 可能하지 않고, ③ 接近과 接觸의 포기는 緊張을 가져오고, 分裂을 永久化하며, 獨逸人의 統合을 파괴하고 離散家族의 生活을 어렵게 만든다는 3가지 根拠에 立脚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東, 西獨 關係의 變化는 「아레나워」→「에르하르트」→「키싱거」의 統治過程에서 쌓여진 強力한 安定力을 基盤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看過할 수 없다.

東, 西獨間의 接觸을 爲한 諸盤過程을 檢討하여 본 결과 어느정도 接觸이 成功段階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接觸分野이다. 5)

註3) 中央情報部, 東, 西獨接觸關係資料集(接觸關係上), 1971.

註4) 上揭書, P. 18.

註5) 여기서 權力機關 어느 一方만에 依하여 提議한 對話나 韓信接觸은 排除하였다. 中央情報部, 東, 西獨接觸關係資料集(接觸關係上, 下), 1971.

- ① 交易分野
- ② 交通分野
- ③ 通信分野
- ④ 社会·文化分野
  - ㉞ 文化·芸術
  - ㉟ 出版
  - ㊱ 스포오츠
  - ㊲ 宗教

여기에 최소한 試圖의 努力을 보인 것까지 包含시키면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다.

- ① 人道的 分野
- ② 文化·芸術分野
- ③ 言論 分野 (新聞, 雜誌 包含)
- ④ 觀光 分野 (旅行 往來)
- ⑤ 學術 分野
- ⑥ 스포츠 分野
- ⑦ 經濟·交易 分野
- ⑧ 交通·通信 分野
- ⑨ 醫·藥學 分野
- ⑩ 科學·技術 分野
- ⑪ 出版 分野
- ⑫ 通信 分野
- ⑬ 宗教 分野

이에 反해 南北間의 接觸關係를 非敏感分野와 敏感分野로 나누어 우선 非敏感分野의 接觸이 시작되고 다음 敏感分野로 接觸이 擴大되어갈 것이라고 展望하는 見解가 있다. 6)

이 見解에 따르면 南北間의 接觸分野를 다음과 같이 分類해 낼 수 있다.

- ① 學術分野
- ② 專門分野
- ③ 通信, 放送分野
- ④ 스포츠分野
- ⑤ 民俗藝術分野
- ⑥ 交易分野
- ⑦ 醫學 및 保健分野
- ⑧ 造船 및 컴퓨터
- ⑨ 航空交通分野
- ⑩ 開發分野

그러나 여기서 提示된 分類는 前記한 一次的 分類와 二次的 分類가 상호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南北間의 接觸可能 形態-分野와 方法, 각기의 2次觸速性의 結合-를 제시한 것이므로 이것으로서 接觸分野를 演說하기에는 좀 힘든 것이다.

최근 70年代의 南北間의 緊張緩和를 爲한 努力의 高潮에 따라

---

註6) 韓國日報, 1972.11.4. <A, K 뉴스> 〃와싱턴 專門家 分析 〃參照

國內에서도 이 接觸關係에 關한 研究가 이루어 지고 있다. 大略 이러한 研究에서 나타나는 分野의 分類는 다음과 같다<sup>7)</sup>

- ① 라디오 . 放送分野
- ② 人道的分野
- ③ 體育分野
- ④ 藝術分野
- ⑤ 文化 , 映画分野
- ⑥ 出版分野
- ⑦ 經濟分野
- ⑧ 氣象分野

이상의 各 分類의 검토에서 基本的으로 다음의 分類方式에 一致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 ① 文化 , 藝術에 關係되는 分野
- ② 學術 出版에 關係되는 分野
- ③ 經濟 , 交易에 關係되는 分野
- ④ 交通 , 通信에 關係되는 分野
- ⑤ 體育分野

그리고 各 경우에 特異한 것을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 ① 觀光分野
- ② 醫 . 藥學分野

---

註7) 國土統一院 , 八 . 一五平和統一構想의 具體的 發展策 , 1971.6

- ③ 科学. 技術分野
- ④ 宗教分野
- ⑤ 保健分野
- ⑥ 改寔分野
- ⑦ 氣象分野

여기서 ①의 觀光分野, ②, ⑤를 합쳐 醫療分野 및 ⑦의 氣象分野를 첨가하고, 해양분야를 기상과 합하여 해양. 기상분야로 독립시켰다. 단 人道的分野는 政治와 인도의 問題로서 南北間의 모든 接觸에 基抵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배제하였다. 8)

勿論 各 分野 相互間에 그 限界가 明確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나 比較的 廣의의 概念인 學術, 經濟 및 文化. 藝術分野는 나머지 다른 相關분야를 除外한 部分에만 한정시킨다.

앞으로 다루게 될 南. 北間의 接觸分野에 관한 一次的 分類는 다음과 같다 (表 4 - 1)

<表 4 - 1> 南北接觸分野

1	2	3	4	5
海洋. 氣象	經濟	文化. 藝術	言論. 出版	體 育
6	7	8	9	
交通. 通信	學 術	觀 光	醫 療	

註 8) 金光雄, 「南北對話의 理論과 戰略」, '72年韓國統一會議發表論文(1972.10.20~22), 嶺南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 2. 接觸方法의 分類

前記한 바와 같이 接觸分野와 接觸方法의 세부屬性의 상호결합으로 接觸可能形態를 構成한다고 說明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接觸可能形態를 構成하는 外廓범위의 다른 하나인 接觸의 方法에 關한 1次的分類를 하려고 한다.

앞에서 東·西獨問의 接觸 先例를 通하여 可能한 接觸分野를 分類한대로 그 方法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9)

- ① 서한접촉에 의한 方法
- ② 인적왕래(시찰 여행등)를 통한 方法
- ③ 공동개발을 통한 方法
- ④ 물자의 교류 또는 교환을 통한 方法,
- ⑤ 공동회의 形式을 통한 方法 - 즉 세미나, 공개토론, 研究發表會등
- ⑥ 技術이나 정보를 交換하는 方法
- ⑦ 共同事業(올림픽 單一팀 구성등)을 통한 方法등이다.

또한 最近의 朴鎭頓 專問家 分析에 의하면 다음 5가지의 分類가 可能하다 10)

- ① 學者, 專問家の 相互往來를 통한 方法
- ② 뉴-스의 교환

---

註9) 中央情報部, 全揭資料集 參照

註10) 韓國日報, 全揭뉴-스參照

- ③ 民俗芸術 団体 등의 交換公演
- ④ 結核, 나병 등 질병 퇴치를 위한 共同努力
- ⑤ 医学 및 生物学에 관한 技術情報 区分

反面에 最近의 国内研究에 의하여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11)

- ① 기자, 觀光人, 家族 등의 인사 왕래
- ② 國際競技 共同出戰, 올림픽 單一팀 構成 등의 共同事業
- ③ 觀光, 文化財, 古蹟等 또는 職業部分別 映画 등의 相互交換
- ④ T.V 放映을 통한 交流
- ⑤ 공동어로 海外商品展示場 등의 共同事業
- ⑥ 氣象部分의 情報交換

이러한 계 分類에 立脚하여 大体로 南北間의 接觸方法은 다음 4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 ① 相互往來
- ② 物資交流
- ③ 技術, 情報交流
- ④ 共同事業 共同研究

勿論 書信接觸이나 事前對話 등의 方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느接觸의 경우에도 一般的 過程으로 利用될 수 있는 性格의 것으로 본다. 人事往來는 主로 相互의 接觸의 수단인 하나로 學者, 專門家 및 分科別人事의 親善訪問 또는 視察에서 부터 相互의 個人, 団体間의 訪問公演, 방문시험(親善競技) 등의 範圍까지 包含

---

註11) 國土統一院, 全揭書參照

시킨다. 그러나 南北赤十字會談의 경우처럼 南北의 學者나 專門家가 서울이나 平壤에서 세미나의 개최, 研究發表會, 共同답사 등을 하는 境遇에는 共同研究의 方法으로 간주한다.

物資交流은 國際間의 交易과 同一한 意味로 쓰여진다. 그러나 特産物의 交流, 專門書籍의 交換, 또는 이동가능한 古蹟의 交換 展示까지 包含시킨다. 단 人的인 南北相互往來를 배제한다

技術情報交流은 放送 또는 通信을 통한 技術情報의 交換에서 부터 專門機構를 통한 交換, 技術協助까지 包含시킨다. 여기서도 物資交流에서와 같이 人的往來를 배제한 範圍에서의 技術, 情報의 交流를 意味한다.

그리고 공동사업, 공동연구는 주로 비무장지대의 개발이라든지, 海外共同 展示場 開設 및 올림픽 單一팀 鑄成等 南北의 同一主体로서 行할 수 있는 事業이나 研究를 말한다.

×                    ×                    ×

이상에서 分類한 南北間의 接觸分野와 接觸方法 각각 順序로 나열하여 다음과 같이 表記할 수 있다. (表4-2)



<表4-2>

接触分野斗 接触方法

接触分野 接触方法	① 洋 氣象	② 經 濟	③ 文化 藝術	④ 言 論 出版	⑤ 体 育	⑥ 交 通 通信	⑦ 学 術	⑧ 觀 光	⑨ 医 療
A. 人的往来	1A	2A	3A	4A					
B. 物資交流	1B	2B	3B	4B					
C. 技術情報交流	1C	2C	3C	4C					
D. 共同事業 共同研究 (common Pro- ject)	1D	2D	3D	4D					

\* 1A, 2A 등은 分野와 方法을 結合시킨 接觸形態를 指示하는 表記名이다.

才二節 接觸의 feasibility 검토

- 接觸의 諸形態를 中心으로 -

앞 節에서 分類된 接觸分類와 接觸方法을 各各의 2次的 屬性을 中心으로 결합하여 諸般 接觸形態를 細分할 수 있다. 다음은 지금까지 南北間의 接觸形態로 言及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言及할 餘地가 있는 것을 中心으로 만들어진 도표이다(表4-3)

여기에 表示된 1A, 1B...9C, 9D는 接觸分類의 分類기호와 接觸方法의 分類기호가 結合된 것을 意味한다. 다시 말하면 諸般 接觸形態의 外廓範圍이다. 12)

---

註12) <表4-2> 「接觸分類와 接觸方法」 參照

예) 여기서 1A는 「海洋 氣象分類의 人的往來」를 지칭한다.

<表 4-3 > 接觸의 諸形態 (分野와 方法의 2 次的 특성간의 結合 형태)

1 A	海洋, 氣象分野의 專門家, 學者의 親善視察
1 B	
1 C	氣象, 情報交流
1 D	水資源 分布 共同 研究, 海外 共同 漁市場 開設, 共同 漁勞, 南北 漁勞 自由化.
2 A	經濟人 親善 訪問, 視察 ( 産業 視察 )
2 B	상징적 特産物 交流, 商品 去來 ( 相互 補完의인 完製品, 源資材 및 土産物 ) 共同 商品 展示場에서 商品 交流, 南北 交易 ( 展示場을  통한 交易, 海上 交易, 港口를  통한 交易, 陸上 交易 )
2 C	共産, 自由國 貿易 情報 交換, 重嶺 工業 技術 協力
2 D	海外 共同 商品 展示場 開設, 經濟人 會議 ( 南北韓 經濟 協助에 關한 ) 資本 協力 ( 直接 投資, 合作 投資 ), 下請 生産, 共同 製造.
3 A	公演 藝術 ( 民俗 藝術 團體 ) 交流, 文化, 古蹟 視察, 風習, 家庭 行事를  통한 家族 交流, 個別 藝術人 交流, 其他 藝術 團體 交流 ( 리틀 엔젤스, 예그린 음악단, 市交響 音樂團等 )

- 3 B 民俗古具等 移動可能한 品目의 交換展示, 写真資料의 交換展示, 文化藝術映画交流 (生活文商映画, 觀光文化財古蹟映画交流 職業別 部門別映画交流, 其他 音樂, 藝術, 彫刻, 写真, 무용 등 諸分野의 相互交流
- 3 C 建築技術·情報交換
- 3 D 古蹟 및 民俗文化踏査 및 共同研究, 言語放言의 共同研究 風俗의 共同研究
- 4 A 記者交流, 言論人交流, 學生交流
- 4 B 歷史 및 專門書籍目錄 및 書籍交流 (歷史研究書, 自然科學 応用科學), 藝術, 社會科學, 分野의 書籍交流, 日刊新聞, 雜誌, 畫報, 學術紙交流
- 4 C 出版技術交流
- 4 D 民族史 및 專門的分野의 共同出版, 南北共同版出版 (統一新聞 研究論文集) 非專門分野書籍共同出版, 藝術書籍共同出版, 文芸書籍共同出版 (詩, 小說)
- 5 A 体育人親善訪問 및 試範競技, 團體競技交換開催 (서울~平壤 축구대회, 大學生競技大會) 部分別競技大會, 교전경기 (울쓰기 씨름, 그네 뛰기)

- 5 B 스포츠장비 交換
- 5 C 個人技, 團體競技錄化 필름 交換
- 5 D 올림픽 및 國際競技共同出戰, 南北共同體育館設立
- 6 A 親善訪問, 視察
- 6 B 家族間의 安否書信往來, 親戚親友間 年賀狀, 贈物往來, T . V 放映交流
- 6 C 라디오다이알解除를 통한 뉴스, 情報交換 ( 家族親知의 消息傳達 )
- 6 D 輸送運輸手段 및 施設利用 ( 航路開設, 港灣利用, 鉄道 및 高速道路利用 ), 南北技術, 專門情報센터設立 ( 長距離 電話, Telex 등 ) 國際航空線延長, 라디오共同聽取,
- 7 A 學者交流
- 7 B 4 B 參照

- 7 C 專門知識，理論交換（醫，藥學，天文氣象學，地球物理學，農學，生物學，化學，考古學） 文，社會，文藝分野知識，理論交換。
- 7 D 非武裝地帶動植物分布共同研究，非武裝地帶動植物生態研究，共同發表會，南北山林共同調查，韓半島高山植物藥查研究，韓國地質共同調查，
- 8 A 觀光人交流（2 A，3 A，5 A 參照）
- 8 B 觀光寫真交流，觀光映畫交流
- 8 C 觀光技術，情報交換
- 8 D 海外共同觀光紹介（共同觀光 팸프 렐 발 간），非武裝地帶共同觀光開筵
- 9 A 專門家의 親善訪問
- 9 B 醫藥品（약劑，傳染病予防藥）交換
- 9 C 醫，藥學分野의 情報交流（4 B，7 C 參照）
- 9 D 結核，라 癩等 韓國에서 만염되고있는 질병의 치를 위한 共同研究

前記 圖表에 表示된 接觸의 諸形態는 接觸可能形態와 연관形態로 나누어진다. 즉 理論의 定立에서 찾은 4가지의 類型 - 즉 T<sub>1</sub>, T<sub>2</sub>, T<sub>3</sub>, T<sub>4</sub> - 에 맞는 것은 接觸可能形態로, 4類型의 어느 것에도 해당치 않는 것은 연관형태로 分類된다.

이 諸接觸可能形態는 각각의 경우 다음과 같은 Matrix를 통하여 feasibility의 판단이 이루어 질 것이다(表4-4)

<表4-4>

接觸形態의 feasibility 檢討

	1. 海洋, 氣象				5. 体 育			
	동질성 (ID)	정치화 (PC)	기술진 (SP)	T	ID	PC	SP	T
A. 인적往来								
B. 物的交流								
C. 技術情報交流	+	+	+	T <sub>1</sub>				
D. 共同事業 共同研究 (common project)					+	0	+	T <sub>2</sub>

여기서 한가지 實例를 들어 說明해 보겠다. 전기 圖表 - 接觸의 形態態 - 에서 海洋氣象分野와 技術, 情報의 交流方法의 結合形態 (◊IC◊로 表記되어 있는 部分) - 해당하는 ◊氣象情報交流◊를 상정하여 接觸의 feasibility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氣象情報交流를 동질성(identity)의 기준에서 볼 수 있다 동질성의 indicator는 가치구조와 經驗的 同質性의 두가지 基準에

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氣象分野에 對한 南北間의 가치구조 (value structure)는 同一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地理的인 條件에서 南·北間이 密接한 氣象關係의 情報協調가 必要함이 事實이다. 勿論 이 分野에 關하여는 보다 세부적인 國際機構의 加入 現況이나 國際氣象情報交換에 관련된 協정등이 尤호한 경험적 功績성을 배가할 수도 있다

다음 政治·文化 (political culture)의 影響面에서도 南·北間의 氣象情報交流가 거의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기술증진 (skill promotion)의 면에서도 南·北間에 상호보완적이라는 面에서 寄與한다.

勿論 보다 專門的이고 세부적인 問題는 본 研究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一般적으로 南·北間의 氣象정보 교류는 세가지 판단기준에 긍정적 (positive)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의 도표에서 表示된  $\diamond + \diamond$ 는 각 판단기준에 긍정적임을 뜻하고 T<sub>1</sub>이라 함은 세가지의 판단기준이 모두 긍정적인 유형을 意味한다.

反面에 올림픽 및 國際競技 單一팀 構成 ( $\diamond 5 D \diamond$ )의 接觸形態를 보자. 이것은 對外的인 民族單一性 과 시나, 民族間의 단일 意識고취, 南·北共同選拔을 통한 팀의 強化등으로 볼때 T<sub>1</sub>의 유형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獨逸의 先例에서 때 동독代表가 西獨으로 귀화하므로서 雙方의 接觸을 阻礙하는 現象을 빚었던 점을 보아서나 13) 團體競技의 팀의 구성문제 등 相互接觸過程에서 아직까지 政治文化的인 측면에서 問題點

註13) 中央情報, 東·西獨接觸關係資料集, (接觸關係下), 1971. PP. 126-

129.



을指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neq 0$  — 즉 相互의 어느 程度의 政治文化에 影響을 주는 中立的인 — 의 값을 주는 것이 보다 妥當할 것으로 판단된다.

以上과 같은 方式으로 諸般接觸形態의 feasibility 를 검토하여 接觸可能形態 — 즉  $T_1, T_2, T_3, T_4$  의 類型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와 이 接觸可能形態를 除外한 接觸形態 — 즉 연관形態 — 로 区分할 수 있다. 14) (表 4 - 5)

---

註 14) 細部的인 判斷過程에 關해서는 <表 4 - 6> 「接觸可能形態와 判斷過程」 參照.

<表4 - 5 >

接觸可能形態斗 接觸연관形態

구분 항목	接觸可能形態	T	接觸연관形態
1 A	海洋, 氣象親善視察	T <sub>4</sub>	
1 B			
1 C	海洋, 氣象情報交流	T <sub>1</sub>	
1 D	水資源分布共同研究	T <sub>2</sub>	共同漁勞, 南北漁勞自由化 海外共同魚市場開設
2 A	經濟人 親善訪問( 產業視察 )	T <sub>4</sub>	
2 B	象徵的 特產物交流	T <sub>2</sub>	商品交流( 原料, 消費財, 投資財, 工業原料物品 ) 資本協力, 交易
2 C	共產, 自由通貿易情報.	T <sub>3</sub>	輕工業, 重工業技術協力
2 D	海外共同商品展示場開設,	T <sub>2</sub>	自由貿易市場開設, 非武装地帶共同開發
3 A	文化, 古蹟視察	T <sub>3</sub>	
3 B	民俗, 古蹟等 移動可能한 品目의 交換 展示, 寫眞의 交換 展示	T <sub>2</sub>	文化, 藝術映画交流
3 C	建築技術, 情報의 交換	T <sub>2</sub>	

구분 항목	접촉 가능 형태	T	접촉 연관 형태
3 D	海外民族文化踏査 및 共同研究	T <sub>1</sub>	言語放言의 共同研究 風俗의 共同研究 兩北間의 古蹟文化財踏査 研究
4 A	記者交流	T <sub>4</sub>	言論人交流, 學生交流
4 B	歷史 및 專門書籍目錄 및 書籍 交流 (歷史研究書, 自然科學 應用科學分野)	T <sub>2</sub>	藝術, 社會, 文藝, 그以外 마찰이 甚한 분야
4 C	出版技術의 交流	T <sub>2</sub>	
4 D	民族史, 專門的分野의 共同出 版 (兩北共同版, 統一新聞, 研 究論文集)	T <sub>2</sub>	非專門分野書籍, 藝術書籍 文藝書籍 (詩, 小說)
5 A	體育人의 親善訪問, 시범경기 (個人技)	T <sub>4</sub>	團體交換競技 (京平競技)
5 B			
5 C	個人技, 團體競技의 錄化 필름 교환	T <sub>3</sub>	

구분 항목	接 触 可 能 形 態	T	接 触 梯 度 形 態
5 D	올림픽 및 國際競技共同出戰 ( 주로 個人記錄으로 판정가 능한 分野 )	T <sub>2</sub>	團體競技 共同出戰
6 A			
6 B	家族間의 安否書信往來	T <sub>3</sub>	親戚, 親友間( 年賀狀往來 ) 禮物往來), T.V放映交流
6 C			
6 D	板門店 南北技術, 專門, 情報 센터설립 ( 장거리電話線Telex )	T <sub>3</sub>	國際航空線延長, 라디오共同 청취, 南北鐵道連結, 高速道 路連結, 相互港灣利用
7 A	自然科學分野學者의 親善訪問 ( 學者交流 )	T <sub>4</sub>	學生交流, 社會, 人文科學分 野 學者交流
7 B	→ 4 B	T <sub>2</sub>	
7 C	專門理論情報交換 ( 醫, 藥學, 天文氣象學, 地球物理學, 農學 生物學, 化學 )	T <sub>2</sub>	人文社會, 文藝分野

구분 항목	접촉 가능 형태	T	접촉 관련 형태
7 D	非武装地帶動植物分布 共同 研究 및 動植物 生態研究	T 1	南北山林共同調査, 韓半島 高山植物踏査研究 韓國地質 共同調査
8 A	部分的 觀光交流 ( → 2 A , 3 A , 5 A )	T 3	
8 B	觀光写真交流, 觀光映画交流	T 3	
8 C			
8 D	海外共同觀光紹介 ( 共同觀光 팜플렛발간 )	T 1	非武装地帶 共同觀光開發
9 A	專門家의 親善訪問	T 4	
9 B	医薬品 ( ワクチン, 전염병예방약 ) 교환	T 2	

구분 항목	接觸可能形態	T	接觸聯関形態
9 C	医. 医学技術. 情報交流 ( 4 B , 7 C )	T 2	
9 D	전염병共同研究 및 共同研 究発表會	T 2	

\* 接觸 聯関形態는 前記圖表 ( 接觸의 種形態 ) 에서 接觸可能形態를 제외한 全部分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중 극단적인 것  
을 배제하고 보다 密接한 分野에 着重하여 分析하였다.

### 第三節 假說의 導出

#### 1. 南北接觸을 爲한 假說(I)

以上에서 南北間의 接觸이 可能的 形態를 4 가지 類型으로 接觸分野와 接觸方法의 matrix를 通해 판단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다시 類型과 接觸分野의 matrix(4x9)에서 다시 再分類하면 필요한 몇가지 假說을 導出할 수 있다.

우선 여기에 각 接觸可能形態를 分析했다. 原來의 matrix 속에서 各各의 接觸可能形態가 판단된 分析過程을 檢討하고자 한다.

(表 4~6)

<表 4~6> 接觸可能形態의 판단過程

方法	분야 판단기준				1. 해양기상				2. 경 계				3. 문화·예술			
	ID	PC	SP	T	ID	PC	SP	T	ID	PC	SP	T				
A. 인 적 교 류	○	○	○	T <sub>4</sub>	○	○	○	T <sub>4</sub>	+	○	○	T <sub>3</sub>				
B. 물 적 교 류					+	+	○	T <sub>2</sub>	+	+	○	T <sub>2</sub>				
C. 기술·정보교류	+	+	+	T <sub>1</sub>	○	○	+	T <sub>3</sub>	○	+	+	T <sub>2</sub>				
D. 공동사업공동연구 (Common project)	○	+	+	T <sub>2</sub>	○	+	+	T <sub>2</sub>	+	+	+	T <sub>1</sub>				

方法	분야 판단기준				4. 언론·출판				5. 체 육				6. 교통·통신			
	ID	PC	SP	T	ID	PC	SP	T	ID	PC	SP	T				
A. 인 적 교 류	○	○	○	T <sub>4</sub>	○	○	○	T <sub>4</sub>								
B. 물 적 교 류	+	○	+	T <sub>2</sub>					+	○	○	T <sub>3</sub>				
C. 기술·정보교류	○	+	+	T <sub>2</sub>	○	○	+	T <sub>3</sub>								
D. 공동사업공동연구 (Common project)	+	○	+	T <sub>2</sub>	+	○	+	T <sub>2</sub>	○	○	+	T <sub>3</sub>				

方法	분야 판단기준	7. 학 술				8. 관 광				9. 의 료			
		ID	PC	SP	T	ID	PC	SP	T	ID	PC	SP	T
A. 인 적 교 류		○	○	○	T <sub>4</sub>	+	○	○	T <sub>3</sub>	○	○	○	T <sub>4</sub>
B. 물 적 교 류		+	○	+	T <sub>2</sub>	+	○	○	T <sub>3</sub>	○	+	+	T <sub>2</sub>
C. 기술·정보교류		○	+	+	T <sub>2</sub>					○	+	+	T <sub>2</sub>
D. 공동사업공동연구 (Common project)		+	+	+	T <sub>1</sub>	+	+	+	T <sub>1</sub>	○	+	+	T <sub>2</sub>

위에서 ID, PC, SP 와 A, B, C, D와의 交. 又에서 生기는 各 cell 은 해당접촉가능형태 (<表 4 - 5> : 접촉가능형태와 연관형태 참조) 에 對한 판단의 過程이다. 그리고 T 와 A, B, C, D의 交叉에서 生기는 cell 은 위의 판단과정에서 나타난 結果를 類型으로 表示한 것이다. 各 cell 중 blank로 남아있는 것은 해당形態의 어느 것도 可能하지 않거나, 接觸의 形態를 發見치 못한 경우를 말한다.

以上の 結果를 接觸類型과 接觸分野의 matrix로 再整理하면 다음과 같은 圖表를 얻을 수 있다.

<表 4 - 7> 接觸類型과 接觸分野 (分析 I)

T	分野	1. 해양·가상	2. 경 계	3. 문화예술	4. 언론출판	5. 체육
T <sub>1</sub>		C		D		
T <sub>2</sub>		D	B·D	B·C	B·C·D	D
T <sub>3</sub>			C	A		C
T <sub>4</sub>		A	A		A	A



T \ 분야	6. 교통·통신	7. 학 술	8. 관 광	9. 의 료
T <sub>1</sub>		D	D	
T <sub>2</sub>		B·C		B·C·D
T <sub>3</sub>	B·D		A·B	
T <sub>4</sub>		A		A

위의 圖表에서 다음 各 要素間의 몇가지의 假說을 發見할 수 있다.

가. 接觸類型과 接觸方法

接觸類型과 接觸方法間의 빈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 4 - 8 > 接觸類型과 接觸方法(分析 2)

方法 유형	상호왕래	물자교류	기 술 정보교류	공동사업 공동연구	계
T <sub>1</sub>	-	-	1	3	4
T <sub>2</sub>	-	5	4	5	14
T <sub>3</sub>	2	2	2	1	7
T <sub>4</sub>	6	-	-	-	6
계	8	7	7	9	31

원편의 分析에 따르  
면 다음 몇가지의  
설명이 可能하다.

첫째로 類型을 中心으로 보면 T<sub>1</sub>의 類型은 共同事業·共同研究의 方法이 빈도가 가장 많으며, T<sub>2</sub>의 類型에는 물적교류, 기술, 情報교류와 共同事業·共同研究의 빈도가 비슷하다. 그리고 T<sub>3</sub>의 類型에는 상호왕래, 物質交流·기술·정보교류·공동연구가, T<sub>4</sub>에는 人的相互

往来만으로 되어 있다.

둘째로 接触方法을 中心으로 보면 相互往来의 方法은 T<sub>3</sub>, T<sub>4</sub> 에, 物質交流는 T<sub>2</sub>, T<sub>3</sub> 에, 技術·情報交流는 T<sub>1</sub>, T<sub>2</sub>, T<sub>3</sub> 에, 共同事業·共同研究는 T<sub>1</sub>, T<sub>2</sub>, T<sub>3</sub> 에 分布되어 있다.

세째로 類型間의 頻度를 보면 T<sub>2</sub>→T<sub>3</sub>→T<sub>4</sub>→T<sub>1</sub> 의 順序로, 接觸方法間의 頻度로 보면 共同研究, 共同事業→相互往来→物質交流 또는 기술정보교류의 順으로 되어 있다.

以上에서 대체로 다음의 假說을 얻을 수 있다.

- (1) 接觸의 優先順位는 共同事業·共同研究→技術·情報交流 또는 物質交流→人的相互往来의 順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부수적인 것으로서는 T<sub>2</sub> 의 類型이 다른 어느 類型보다 頻도가 높으며 반면에 類型을 考慮치 않을 경우 各 接觸方法이 갖는 接觸可能形態의 頻도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接觸類型과 接觸分野

接觸의 類型과 接觸分野間의 頻度を 보면 다음과 같다.

<表 4 - 9> 接觸類型과 接觸分野(分析 3)

分野 유형	해양 기상	경 계	문화 예술	어론 출판	체육	교통 통신·방송	학술	관광	의료	계
T <sub>1</sub>	1		1				1	1		4
T <sub>2</sub>	1	2	2	3	1		2		3	14
T <sub>3</sub>		1	1		1	2		2		7
T <sub>4</sub>	1	1		1	1		1		1	6
계	3	4	4	4	3	2	4	3	4	31

여기에서 보면 교통·통신分野를 除外한 諸分野에서의 頻度가 거의 같다. 그러나 文化예술分野와 學術分野가 좀 優勢한 것 처럼 보이나 各分野의 範圍를 同一 差元에서 比較할 수 없으므로 一貫性있는 결론이 될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假說을 얻을 수 있다.

- ① 거의 모든 分野에서 接觸이 可能하다.
- ② 교통·통신分野의 接觸은 다른 分野보다. 그 接觸可能의 程度가 弱하다.

以上 “가” “나”에서 얻은 假說을 整理하면 다음 다섯가지로 나눌수 있다.

- ① 거의 모든 分野가 接觸可能한 形態를 갖고있다.
- ② 南北間의 接觸은 共同事業, 共同研究의 方法이 우선되어야 한다.
- ③ 人的인 相互往來를 爲해서는 보다 많은 政治的 努力이 경주되어야 한다.
- ④ 物資의 交流나, 技術·情報交流는 共同事業, 共同研究보다 接觸可能 程度가 弱하고 人的往來의 경우보다는 強하다.
- ⑤ 교통·통신分野의 接觸은 接觸可能性이 다른 분야보다 적다.

以上の 假說은 大體로 接觸分野別, 類型別, 方法別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南北接觸의 可能形態를 一般的으로 說明하기에는 困難한 點이 없지 않다. 즉 各各의 可能形態는 各接觸分野와 接觸方法의 二次的 屬性을 中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一般的으로 말해서 위의 5가지 假說은 南北接觸의 方向을 提

示할 수 있다는 점에서 意味가 있을 것이다.

## 2. 南北接觸을 爲한 假說(Ⅱ)

南北接觸을 爲한 假說(Ⅰ)에서는 分野와 類型·方法 間의 一般的인 頻度를 中心으로 한 關係만을 檢討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미 判斷된 接觸可能形態를 中心으로 보다 細分된 形態相互間의 關係를 檢討하므로써 接觸을 爲한 몇가지 假說을 導出하려고 한다.

南北接觸의 可能形態로 判斷된 可能形態를 다음 몇가지로 分類해 볼 수 있다.

### 가. 接觸類型과 接觸方法

南北間의 接觸可能形態를 接觸의 類型과 接觸方法의 matrix 에 表記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4 - 10)

假說(Ⅰ)에서는 南北間의 接觸方法은 共同事業·共同研究→技術·情報交流 또는 物資交流→人的相互往來의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說明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順位를 구성한 細部的 接觸可能形態間의 聯関性을 発見하려고 한다.

첫째로 共同事業·共同研究의 方法中  $T_1$ 의 類型을 構成하는 形態는 모두 場所의 制約을 받지않는 곳이다. 즉 "海外"라든지 또는 "非武裝地帶"를 挾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共同事業·研究가 優先的이어야 한다는 假說에 몇 붙여 이러한 方法이 場所의 制約을 느끼지 않는 곳이라는 事實이 添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大部分의 可能形態가  $T_2$ 의 類類에 分布되어 있다. 그리고 大体로 거의 論爭의 여지가 없는 初歩的 形態로 구성되어 있

	인적상호왕래 (인적교류)	물 자 교 류	기 술 · 정 보 교 류	공동 사업 · 공동 연구 (Common project)
T <sub>1</sub>			해양기상정보교류  해외민속문화담사 및 공동연구 비무장지대동식물분포공동연구 및 동식물생태연구 해외공동관광소개 (공동관광패플렛발 간)	
T <sub>2</sub>		상징적 특산물교류, 민속·고적등이 동가능한 품목의 교환전시, 사건의 교환전시, 역사서적·전문서적목록교 환및 서적교환 (역사연구서, 자연과 학), 의약품 (와전·전염병예방약) 교 환	건축기술정보의 교환 출판기술의 교류 전문이론정보교환 의·약학기술정보교류	수자원분포공동연구, 해외공동상품전 시장개설, 민족사, 전문적분야의 공 동출판 (남북공동판, 통일신문연구논 문집), 국제경기공동출전 (주요개인 기), 전문서적교류, 전염병공동연구및 공동연구발표회
T <sub>3</sub>	문화·고적시찰 부분적관광교류	가족간의 안부·서신왕래 관광사건교류·관광영화교류	공산·자유권무역정보교환 개인기·단체경기 녹화필름교환	판문점·남북기술정보센터설립 (장거 리전화, Telenex.)
T <sub>4</sub>	해양기상친선시찰, 경제인간친선방문 (산업시찰), 기자교류, 체육인친선방 문 및 시범경기 (개인기) 자연과학분야학자의 친선방문 (학자 교류), 의료전문가친선방문			



다고 볼 수 있으나 各形態마다 상당한 政治的인 努力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政治的 努力은  $T_3, T_4$  로 가므로서 더욱더 加重될 필요가 있다.

세째로 物資交流나 技術·情報의 交換 및 共同事業·共同研究가 거의 同一한 分布를 보이고 있는 반면  $T_1$ 의 類型보다 과급 效果의 程度가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大部分의 形態가  $T_2$ 와 類型으로 判斷된 이유는 政治文化的인 基準에 關聯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다 조심스러운 接觸을 必要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네째로  $T_3$ 와  $T_4$ 의 類型인데,  $T_4$ 의 類型은 거의 모두가 淸州시찰·淸州방문의 性格을 띄고있어 人地 상호往來는 淸州시찰·방문의 뜻으로 理解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T_2, T_3$ 에 해당하는 形態의 경우 專門的 學術分野나 - 주로 自然科學分野 - 民俗文化·藝術 등의 理論情報 및 研究된 知識의 相互交換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순위는 낮지만  $T_3$ 의 類型에 屬하는 板門店 南北技術·情報센터의 設置와 같은 形態가 媒介機能機構로서 役割을 期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의 간단한 分析을 通하여 다음의 假說 導出이 可能하다.

① 南北間의 接觸方法에 있어서는 共同事業·共同研究가 優先되어야 한다. 단 場所的 要件이 韓半島內가 아닌 海外 또는 非武裝地帶가 보다 바람직 하다.

② 人的相互往來는 주로 親善訪問·視察에 한정되며 政治的인 影響을 다른 方法보다 많이 받는다. 따라서 政治的 努力이 보다

많이 必要하다.

③ 接觸過程에서 場所的 條件을 考慮할때 海外 또는 非武裝 地帶의 共同研究·共同事業→物資·情報·技術交流→南北韓의 往來를 통한 接觸의 順이 바람직 하다.

以上의 假說에서 보면 可能하면 南北이 同時에 加入된 國際기구를 통한 接觸도 考慮할 수 있으며, 南北間의 直接往來가 아닌 UNESCO, 나 UNCURK 및 기타 第3國을 媒介로한 方法이 可能할 수 있다.

그리고 板門店 南北技術·情報센터의 設立등의 形態가 바람직 하 다.

#### 나. 接觸類型과 接觸分野

前記 假說(I)에서는 모든 分野가 接觸可能한 形態를 갖고 있 음을 說明하였다.

여기에서는 各分野와 類型別로 接觸可能形態를 再 表記하여 보았 다. (表 4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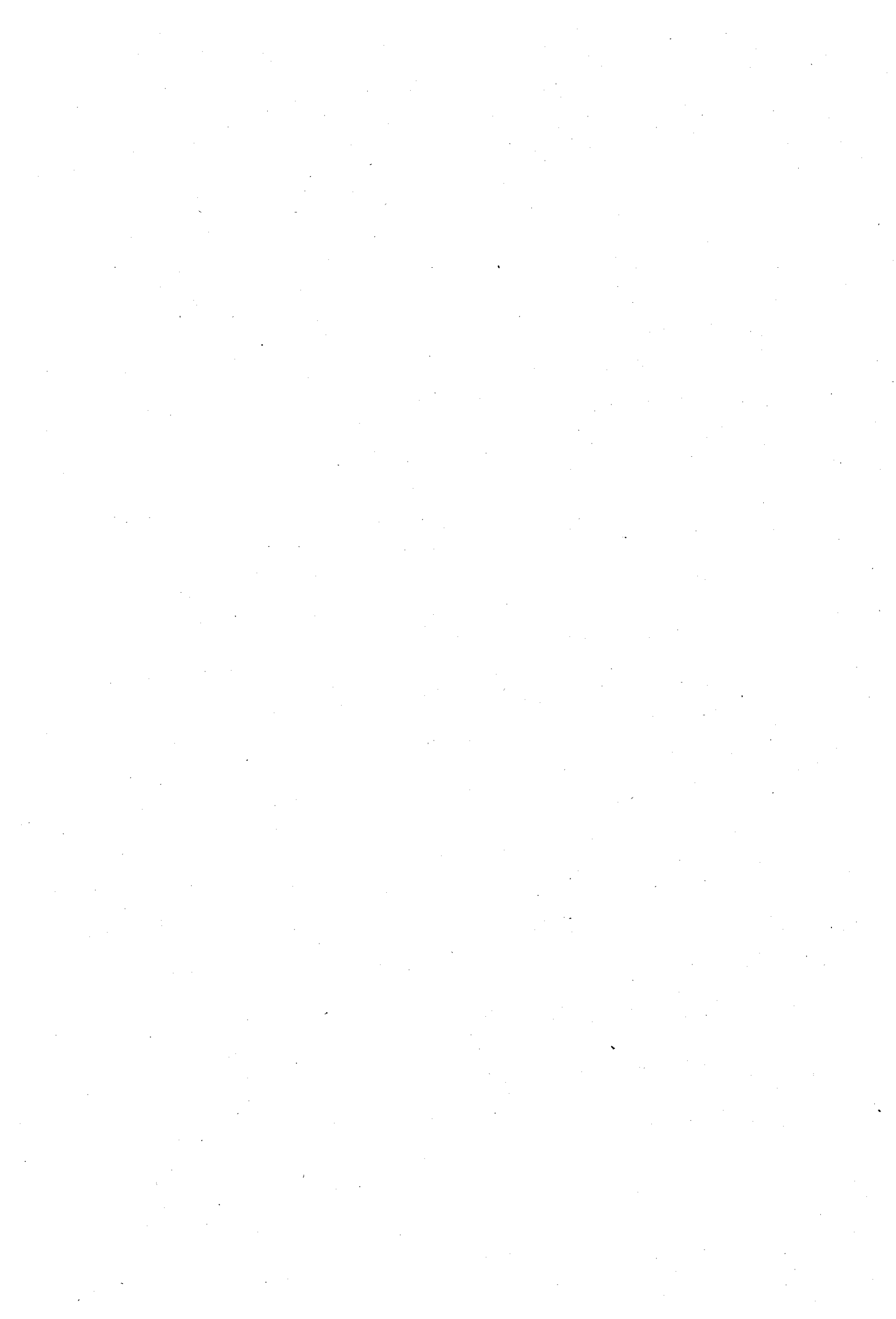
大體로 上記의 圖表에서 볼 수 있는 南北間의 接觸分野의 우선 순위는 1의 유형에서 해양기상分野, 民俗文化分野, 專門學術 分野, 관광分野가 一次的인 分野이고, 이 중 民俗文化, 學術分野의 경우가 보다 그 接觸의 範圍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1\*의 해양기상분야 \*3\*의 문화예술분야와 \*4\*의 언론 출판 分野는 학술分野共同通性을 띄고 있어 이 두 分野를 合한 南北間의 學術交流가 가장 他分野 보다 接觸度가 높다고 할 수 있다.



接觸形態，接觸類型，接觸分野 (分析 5)

분야 유형	1. 해양기상	2. 경 제	3. 문화예술	4. 언론출판	5. 체 육	6. 교통·통신·방송	7. 학 술	8. 관 광	9. 외 료
T1	해양기상정보교 류		해외민속문화답사 및, 공동연구				비무장직대동맹 동식물생태연구 (공동발표회)	해외공동관광소개 (공동관광플렛 발간)	
T2	수자원분포공통 연구	상징적, 특산물교 류, 해외공동상품 전시장 경제인전 문가회의	민속·교적등이동 가능한품목의 교 환전시, 건축·기 술·정보의교환	역사서적·전문서 적목록 또는 서 적교류, 출판교류 공동출판(역사, 전문서적)	국제경기공동출전 (개인기록분야)		전문서적교류 전문이동정보교환 (자연과학분야)		의약품(와전, 전 염병예방) 교환 의약학기술정보교 류, 전염병공동연 구및공동연구발표회
T3		공산·자유진영역 정보교환	문화·교적시찰		개인기·단체경기 의 녹화필름교환	가족간의 서신왕 래, 판문점남북기 술정보센타설립 (장거리전화)		부분적관광교류, (관광여행) 관광 사적교류, 관광영 화교류	
T4	해상·기상분야 학자·전문가 권 선시찰	경제인권선방문 (사업시찰)		기타교류	체육인권선방문및 시범경기(주목개 인기)		자연과학분야학과 권선방문교류	전문가의 권선방 문	



반면에 비교적 유형별로 볼때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관광分野·의료分野이다. 이 두分野를 주로 福祉面으로 把握할 때 비록 接觸度는 學術交流보다 못하지만 接觸의 可能性이 가장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이 成立될 수 있다.

① 남북간의 學術關係分野의 交流가 그 接觸度가 가장 크다.

② 관광·의료分野의 接觸이 가장 用易하다.

以上 "가", "나"에서 다음의 5가지로 要約整理가 可能하다.

① 南北間의 接觸方法에 있어서 共同事業·共同研究가 優先되어야 한다. 단 場所的 條件이 韓半島內가 아닌 海外 또는 非武裝地帶가 보다 바람직하다.

② 人的相互往來는 주로 親善訪問, 視察에 한정되며 다른方法보다 政治文化的 側面에 직접적인 影響을 加할 可能性이 있으므로서 政治的 努力이 더 必要하다.

③ 接觸過程에서 場所的 條件을 考慮할 때 海外 또는 非武裝地帶의 共同 研究·共同事業→專門分野 및 民俗文芸分野의 기술·정보교류, 部分的인 物資交流→南北間의 往來를 通한 親善往來의 順이 바람직하다.

④ 南北間의 接觸에 있어 學術關係分野의 交流가 그 接觸度가 가장 크다.

⑤ 관광·의료分野의 接觸이 가장 用易한 分野로 看做된다.

#### 第四節 理論 適用의 限界

南北間의 諸般接觸可能形態의 發見과 假說을 導出하는 過程을 接觸類型의 定立 및 그 適用의 단계로 說明해 왔다. 그러나 南北이라는 現存 狀況이 갖는 條件과 本 研究過程에서의 理論的 體系의 빈약으로 相當한 問題點을 수반하고 있다.

以上の 類型適用을 통한 南北의 接觸을 爲한 假說은 아직 檢證되지 못한 予測(prediction)에 不過하다. 따라서 假說은 假說自體로서 意味가 있다고 하겠다.

本 假說導出의 過程이 갖고 있는 理論的 限界는 두 部分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四章에서 定立된 類型의 판단기준의 問題와 둘째로는 이 類型을 통한 接觸可能形態의 feasibility 검토 過程이다.

각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說明할 수 있다.

(1) 판단기준의 scaling 과정에서 完全히 科學的이지 못했다는 點이다. 각 판단기준 - 동질화(identity), 政治文化(political culture), 기술증진(skillpromotion)-이 接觸의 可能형태의 판단을 위한 基準으로서 相互 排他的으로 또 同一 差元에 두려고 努力했으나 세부의인 嚴密한 意味에서는 自信이 없다. 또한 각 判斷基準의 scales - positive, neutral negative -의 정도나 境界範圍가 판단과정에서 混亂을 가져온 감이 없지 않다.

(2) 接觸可能形態의 판단에서 아직 이 分野의 어떠한 既存의 체계적인 研究가 없었다는 點에서 편견과 主觀에 의해 獨善的으로

유도되었을 可能性이 없지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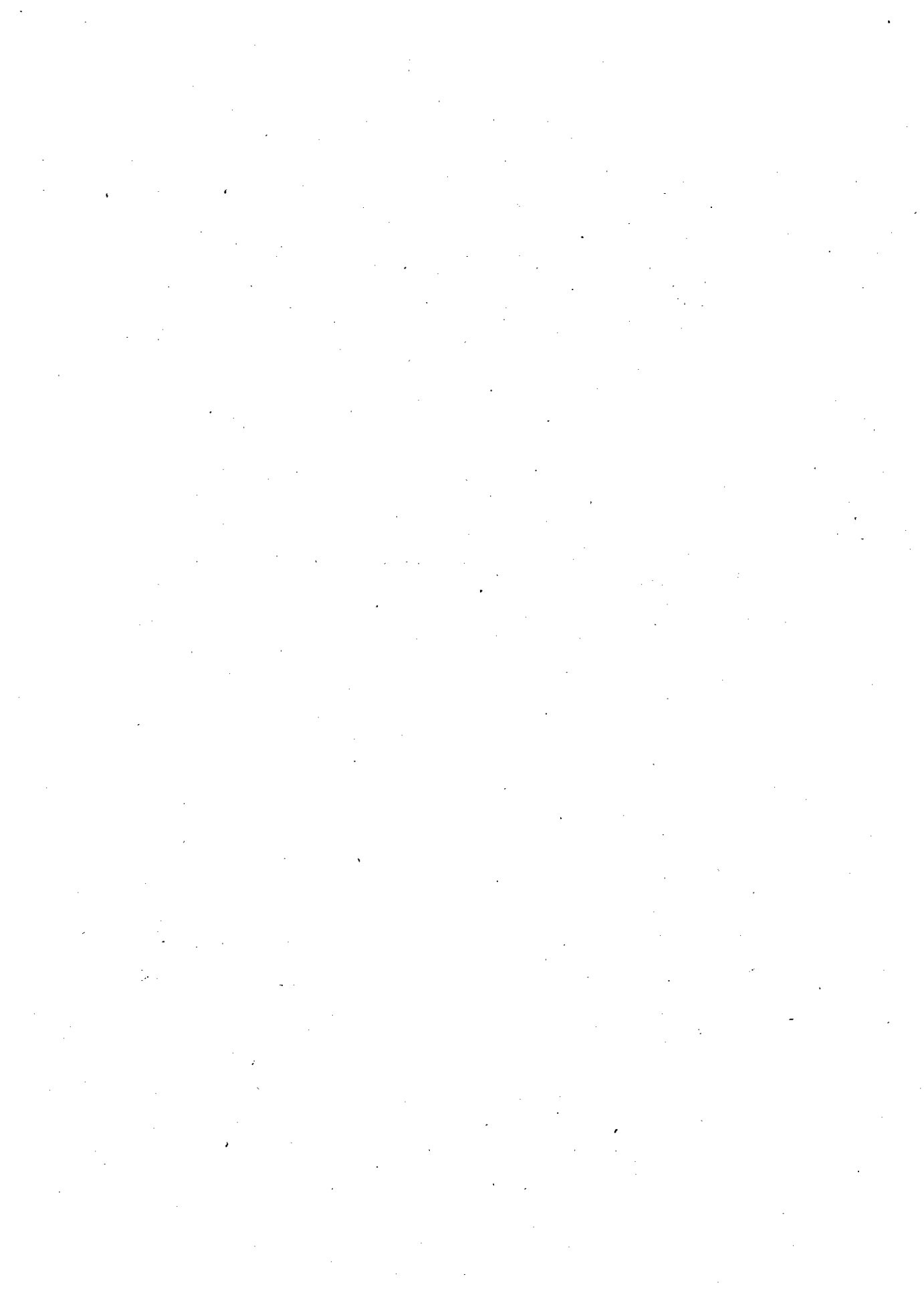
따라서 本 理論이 더욱 意味있기 爲해서는 다음 몇가지 部分의 研究와 發展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① 판단기준간의 배타성

② 판단기준의 scaling

③ 接觸可能形態의 판단을 위한 충분한 자료의 보완

서론에서 밝힌바와 같이 本 研究는 南北間의 接觸을 爲한 試圖 라는 면에서 意味가 있음을 다시 밝힌다.



## 才 五 章 結 論

一般的으로 南北韓 關係를 統一과 聯關시켜서 볼때 否定的으로 보는 見解가 있는 反面에 이것을 肯定的으로 보는 見解가 있다.

前者의 경우는 平和的 方法에 의한 南北의 統合 - 내지 南北의 單一化 - 을 否定하는 것으로서 我邦體制를 肯定하고 他邦體制를 否定하는 前提에서 이루어지는 見解인 反面에 後者の 경우에는 相異한 理念·體制에도 不拘하고 南北이 平和的 方法에 依해 統合될 수 있다는 假定에 立脚하고 있다.

7.4 南北共同聲明을 包含한 最近의 北韓의 態度의 變化를 所謂 人民解放戰略을 指稱하는 戰略的인 側面과 自體의 安保를 核心으로 하는 戰術的인 側面으로 나누어 把握할 수 있다. 1)

이것은 '70年代 前後의 北韓의 態度 變化를 對外的인 緊張緩和의 壓力에 對한 適應과 北韓內部的 經濟·軍事 등의 內的 葛藤現象을 解消하기 爲한 戰術의 變更으로 解析할 수 있음에 反하여 한 편은 既存의 對南人民解放戰線戰略에는 하등의 變化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側面에서 볼 때 南北接觸 역시 보다 戰略的·戰術的인 次元에서 考慮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다.

그러나 南北間의 接觸을 이러한 戰略的·戰術的側面에서 考慮할 경우에 이것은 既存 南北間의 理念的인 對峙狀態를 그 手段面에

---

註 1) 國土統一院, 南北共同聲明에 任한 北韓의 抵意, 1972, 10, PP. 45~49.

있어서 變化된 또 다른 形態의 對峙狀態의 繼承을 意味한다. 이것은 既存 南北關係가 國際的인 自由·共產 兩陣營間 理念對立構造의 秩序下에서 戰略的, 戰術的인 對峙狀態로 一貫하므로서 相互間의 敵對感을 助成하고 惡盾環과 相互異質性만 深化시켜 왔던 事實로서 立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南北間의 接觸은 多분히 否定的인 것으로 看做할 수 있다.

그러나 最近의 國家實利主義를 標榜하므로서 脫Ideology로 指向하는 國際政治秩序의 새로운 變化의 推移와 南北 政治指導者들의 民族統合努力을 民族과 理念의 새로운 二重關係속에서 把握하므로서 上記의 戰略的, 戰術的, 側面을 考慮하지 않는 非政治的 分野의 接觸을 想定할 수 있다. 이것은 非政治的 領域의 接觸이 시작되어서 이것이 궁극적인 南北單一化를 段階的으로 實現할 수 있는 基盤이 될 수 있다는 論理를 取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것은 南北間의 相互 戰略的, 戰術的인 次元에서만 이루어져온 既存의 統一努力이 全히 南北間을 單一化시키려는 것과는 反對方向으로 作用해 왔다는 歷史的 經驗으로 볼때 더욱 意味를 갖게한다.

本 論文은 南北關係를 肯定的으로 把握하려는 前提下에서 試圖된 非政治的 接觸에 關한 研究이다. 따라서 既存의 戰略的·戰術的인 方法(我方體制肯定, 他方體制否定의 立場)에 依한 南北의 統一은 全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本 研究는 南北接觸理論定立을 爲해 南北間의 關係를 普遍主義的 理念의 次元과 民族의 次元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調和와 葛藤의 二重關係에서 把握하고 이것을 集約하여 南北間의 二重構造의 틀을



提示하였다. 그리고 南北間의 非政治的 分野의 接觸이 이루어지기  
爲해서는 同一民族이라는 側面, 體制守護의 側面, 接觸을 維持하고 波  
及하는 側面에서 考慮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南北接觸可能形態 選定  
을 爲한 세가지의 理論的 判斷基準으로서 同質性(identity), 政治  
文化(Political Culture), 技術增進(Skill Promotion or posit-  
ive Function)의 概念을 使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세가지 基準을 接觸의 試函과 維持·擴大와 關聯시  
키므로써 接觸을 爲한 戰略變數-技術增進-와 制約變數-同質性, 政治  
文化-로 分離把握함과 同時에 南北接觸可能形態選定을 爲한 4가지의  
接觸類型을 設定하였다. 이러한 接觸類型을 通하여 實際로 導出된  
接觸可能形態와 接觸優先順位에 關한 假說은 第四章에서 상세히 說明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미 各章에서 言及했던 것중 重要的 몇  
가지만 指摘하므로써 結論을 맺고자 한다.

① 南北間의 接觸은 基本的으로 民族과 理念의 二重構造面에서  
把握되어야 한다.

② 南北間의 接觸은 單一民族으로서의 同質성과 相異한 理念·體  
制를 갖는 異質的 兩體制間의 體制守護 및 接觸의 維持 擴大라는  
側面에서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接觸技術增進의 세가지 基準에서 考慮  
되어야 한다.

③ 南北間의 接觸은 共同研究·共同事業에서 →物資·情報·技術交流  
→南北間의 人的往來의 順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④ 南北間의 接觸은 學術分野의 交流가 그 接觸度(frequency  
of contact)가 가장 크며, 관광, 의료, 分野의 接觸이 가장 用易하

⑤ 南北接觸의 場所的 條件을 勘案할 때 海外·非武裝地帶·관문점등이 優先的으로 考慮된다.

⑥ 接觸의 波及效果를 고려할때 관문점에 南北技術·情報센터를 設立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